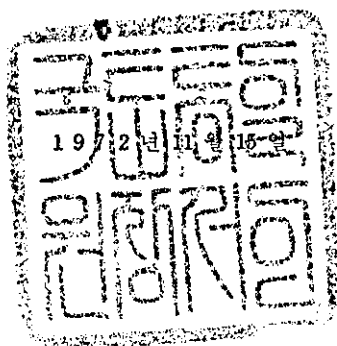


이 報告書를 國土統一院 1972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관한
最終報告書로 제출합니다



研究機關: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

研究責任者: 민 명 친

目 次

I. 安保狀況과 統一의 關係	(5)
序 論	(7)
1. 南北韓의 安保政策과 統一問題	(9)
2. 地理的 安保條件과 統一問題	(12)
3. 國際支援力減少와 統一問題	(15)
4. 政治心理的 威脅과 統一問題	(19)
結 論	(22)
II. 韓國의 安保와 共同聲明	(25)
1. 問題의 提起	(27)
2. 7.4共同聲明의 背景	(28)
3. 北韓의 平和攻勢의 底意	(34)
4. 結論 (對話를 위한 安保對策)	(37)
III. 討議 및 建議	(41)
1. 討 議	(43)
2. 綜合 및 建議	(51)

I. 安保狀況과 統一의 關係

序 論

1. 南北韓의 安保政策과 統一問題
2. 地理的 安保與件과 統一問題
3. 國際 支援力 減少과 統一問題
4. 政治心理的 威脅과 統一問題

結 論

안보狀況과 統一의 關係

閔 丙 天

序 論

分斷國家에 있어서의 안보와 統一問題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 명백하다. 分斷國의 安全保障은 주로 分斷이라는 事實自體에서 問題性이 파생되어 나오고 있고 分斷된 各個의 政治體制는 서로가 相對方을 부정하거나 吸收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安全保障問題를 民族안보의 것으로 超躰하여 생각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各個體는 體制의 안보를 위한 궁극의 목표를 統一(原則적으로 吸收)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個別的 體制라는 점에서 볼 때 個體의 안보는 不統一狀態에서 생겨 난다고 하겠다.

反對로 分斷國의 統一問題는 안보라는 측면을 度外視하고 논의되기 어렵다. 分斷國의 안보가 分斷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이 그의 統一問題는 안보에서 出發된다고 생각된다. 個體의 안보에의 執着이 統一을 제약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안보狀況의 展開가 統一을 촉진하기도 하는 것이다. 統一과 分斷은 안보狀況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보와 統一의 問題는 密着되면서 때로는 函數的 關係를 때로는 逆函數關係를 나타 낸다고 하겠다.

안보와 統一과의 관계의 密着性을 알기 위해서 分斷國의 安定狀態를 먼저 圖表로 만들어 보았다.

다음 表에서 몇가지 特徵的 事實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他律에 의해서 分斷된 國家는 自生的인 分斷國보다 大體로 安定的이다.

둘째, 理念과 관련되어 分斷된 國家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不安定하고 緊張的이다(獨逸除外).

分斷國의 安定性

內 容	國 家	南 北 韓	東 西 獨	印 과	中 國	라오스	南 北 越	과·뎡간
分斷의 契機		分割解放(理念)	分割占領(理念)	分割獨立(宗教)	內亂分斷(理念)	內亂分斷(理念)	內亂分斷(理念)	分割獨立(民族)
分斷後 戰爭		大戰爭	없음	國境紛爭	小紛爭	內亂中	戰爭中	없음
現狀의 安定性		緊張的競爭	平和的競爭	完全安定	潛在的 不安	不安定	不安定	安定化
相對에 대한 態度		吸收指向	共存指向	共存指向	吸收指向	吸收指向	吸收指向	共存指向

세째, 相對方에 대해서 吸收指向的인 곳에서는 不安定하고 緊張的이다. 뒤집어서 不安定한 곳에서는 吸收主義的이다.

네째, 關係大國의 最大介入地域(越南)이 가장 緊張되어 있고, 最小介入地域(中立的 態度)도 또한 緊張的이다. 關係大國의 最大介入時와 最小介入時에 戰爭狀態에 있는 것이다.

다섯째, 東亞의 分斷國에 緊張性이 더 강하다.

한편 不統一狀態가 安保狀況을 어떻게 規制하는가의 特徵的인 것만 제시하여 보기로 하겠다¹⁾.

하나 分斷國의 各個體는 상대방에 대한 威脅을 평가하는 方程式에 있어 통일된 國家의 그것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統一國家의 他國에 대한 威脅評價方式은 意圖와 能力만의 綜合評價라는 方式으로 이루어 지지만 分斷國의 경우는 거기에 「統一意志」가 추가 되게 마련이다. 各個體는 자기가 원하는 方向에서 統一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分斷國의 安保構想은 攻擊的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또 하나는 分斷國에는 軍事力의 多數保有現狀이 일어 나고 그에 따라 緊張性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이다. 正規軍人數만 보더라도 韓半島에 100餘萬이 집중되어 있고 獨逸에는 65萬, 越南에는 100餘萬이나 된다. 分斷은 軍事力集中에 따르는 緊張性化的 安保狀況을 조성하고 이런 安保狀況은 統一方式에 다시 영향을 주기도 할 것이다.

以上の 特徵에서 우리는 우리의 安保와 統一問題도 相關性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安保狀況은 關係國의 態度, 雙方의 統一이나 安保에 대한 政策, 內部事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安保狀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統一問題나 7·4南北共同聲明의 참다운 意義를 정확히 이해하고 方向지을 수 없다고 하겠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國際關係, 雙方의 政策과 관련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統一研究協會, 統一研究, 1972, pp. 26~27.

지금까지의 많은 統一主張이 實踐力을 갖지 못하는 空理論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安保狀況과는 동떨어진 주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순수한 民族理論에 바탕을 두고 安保問題를 度外視할 때 그것은 現實性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現實에 바탕을 두지 못할 때 그것은 當爲로서는 正當化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現實的인 實効性을 못 갖는 것이다²⁾.

우리 나라의 安保와 統一의 相關性을 分析하려 할 경우 安保의 統一에 대한 影響, 分斷의 安保에 대한 影響, 統一을 위한 安保의 接近方法, 安保를 위한 統一의 接近方法, 統一後의 安保構想등 여러 角度와 分野에서 綜合的으로 다루어질 때 비로소 확실한 解答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諸側面을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安保와 관련된 狀況이 安保나 統一에 어떤 影響을 줄 것인가를 다루는데 그치기로 하겠다. 이 경우에도 安保와 관련되는 狀況은 너무도 많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비교적 決定的인 影響要素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側面에 局限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分析의 方法은 주로 環境狀況을 獨立變數로 하고 安保와 統一問題를 從屬變數로 하는 相關分析法을 채택하기로 하겠다.

1. 南北韓의 安保政策과 統一問題

韓半島에 있어서의 不安全要因은 源泉的으로 分斷에서 생겼다. 이 源泉的인 不安要因이 제거되지 않는 한에는 安全 또는 戰爭의 危險性이 완전히 가셔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1948年 南北韓에 각기 상이한 體制가 성립된 이후 南北韓當局은 언제나 統一을 전제로 하는 安保를 생각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統一은 두 가지 原則——적어도 南北共同聲明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이 絶對的인 것이었는 바——下에서 추구되었다.

하나는 唯一性理論에 입각한 相對的 存在의 否定이다. 韓國측은 UN에 의한 唯一合法性의 인정으로 正統化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北韓內의 集團을 인정하지 않았다. 北韓측은 「朝鮮」속에서의 北半部와 南半部라는 概念으로 唯一性을 주장하고 「美國의 지원을 받는 南韓政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³⁾. 唯一性理論이 固着化되는 동안 緊張과 戰爭의 위험은 가셔지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吸收主義이다. 이것은 唯一性論과 相對否定論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歸結로서 나타났다. 北韓은 吸收主義를 전개시키는 方法으로 全面的 戰爭, 暴力的 內亂, 平和統합등을 택하여 왔다. 吸收主義를 原則으로 할 때, 暴力的인 것이 보다 前面에 등장할 위험이 큰 것이다.

2) 金俊熙, 三重連鎖國性과 우리 祖國 再統一問題, 統一研究協會, 統一研究, 1972, p.36과 比較

3) 防衛年鑑, 1971, p.33.

1972年 7月 4日에 있었던 南北共同聲明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唯一性理論과 吸收主義가 南北關係와 統一問題에 있어서 두개의 기둥과도 같은 原則으로 南北間에는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두개의 原則을 깨뜨리지 않는 限에는 戰爭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므로 南北共同聲明과 같은 歷史的 조치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唯一性和 吸收主義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南北韓이 취하여온 安保政策은 對立的인 것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는바 그 內容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差異가 있다고 하겠다.

南北韓의 安保政策比較

區 分	南	北
基 本 性 格	1. 自由民主國家建設 2. 消極的 外延化 3. 守勢的 安保	1. 共產國家建設 2. 積極的 外延化 3. 攻勢的 安保
具 體 的 展 開	反共精神의 確立 UN尊重, 自由友邦과의 協力, 韓美 安保制體 自立經濟 自主國防 自由民主統一	唯一思想과 共產主義의 確立 共產國과의 協力, 共產革命 鬭爭의 支援 自立經濟 自 衛 共產統一

앞의 表에서 보듯이 南北韓의 安保政策은 모두가 대립되는 것이다. 비록 「用語」와 「表現」에 있어서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追求하는 方向은 正反對의 것이다.

이제 南北韓의 安保政策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北韓의 安保政策은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基本構想아래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다고 하겠다 하나는 北韓地域內에서의 社會主義體制의 維持 발전이라는 消極的인 측면과 또 하나는 社會主義體制와 理念을 南韓에 까지 外延化시킨다는 積極的인 측면이다. 理念과 體制를 南韓으로 外延化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統一政策과 깊은 관련이 있다. 統一과 관련하여 北韓측에서 취하여 온 安保政策은 몇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천되어 왔다고 생각된다⁴⁾.

第1期은 1948년부터 休戰이 성립될 때까지 라고 하겠는바 이때의 北韓의 통일과 관련된 安保政策은 직접方式에 의한 「南韓의 解放」에 의해서 安全을 유지한다는 가장 積極的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北韓의 安保政策은 力量의 內面化가 아니고 理念의 外延化에 치중시킨 것이었다. 體制內的 內實化가 없이 理念의 外延化를 꾀했기 때문에 그것은 國際主義的, 外勢依存的인 것일 수 밖에 없었고 體制의 外延化가 空洞化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南韓의 解放」에 의한 安全의 維持는 北韓體制自體의 喪失의 危險에 까지 이를뿐 했다.

4) Park, Tong-Woon, *Unification Formula of Communist North Korea*, Asiatic Research Cente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Korean Unification, 1971, pp. 739~756.

第2期는 休戰에서 60년까지이다. 이때의 北韓측의 통일과 관련된 安保政策은 經濟에 치중하는 地域內的, 體制內的인 것이었다. 이것은 第1期の「南韓解放」에 의존한 安保政策이 體制整備없이 감행되어 失敗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戰災의 복구가 더욱 급박했기 때문이었다고도 하겠다. 韓半島에서 戰爭危險이 가장 적었던 時期——大韓民國이 가장 安全할 수 있었던 때——는 이때라고 생각된다.

第3期는 61年 5·16革命이 있는 후부터 71년까지이다. 이때의 北韓의 安保政策은 內的으로 高度國防體制化와 同盟體制化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高度國防體制化의 象徴的인 것은 四大軍事路線⁵⁾이고 同盟體制化는 소련및中共과 이루어졌다⁶⁾. 四大軍事路線의 추진은 重工業爲先에 바탕을 둔 經濟建設과 병행되어 추진되었는데 그것은 成功的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⁷⁾.

高度國防體制化를 기반으로 하는 北韓의 統一과 관련된 安保政策은 間接近方法(迂迴的)에 따랐다. 67年에서 69년에 걸친 武裝工作隊의 南派나 그후에 계속된 「統一革命黨」의 建立에서 보듯이 南韓에서의 「解放鬭爭」을 支援한다는 입장에서 統一과 安全을 이루려는 方途를 취하여 왔다.

이 세 時期를 통해서 볼때, 統一과 관련된 北韓의 安保政策은 직접方式에 의한 「南韓解放」에서 內實化의 단계를 거쳐 間接方式에 의한 「南韓解放」으로 변천하여 왔다. 이같이 方式上的 變化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積極的 吸收主義와 攻勢的 安保方式 및 外延化를 指向하는 限에는 南半島에서의 平和와 우리의 安全保障은 威脅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不安全要因을 源泉的으로 除去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는바 共同聲明은 이 점에서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한편 韓國의 安保政策은 北韓에 비하여 어떤 特性을 가지고 變遷되어 왔는가?

韓國의 安保政策은 體制的 整備強化라는 內向的 性格이 두드러졌다고 생각된다. 唯一合法性의 強調은 國際社會에서 차지한 우월적 위치를 계속하여 유지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內向的이며 防衛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反共」도 自由民主體制를 위협으로부터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內向的인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이 韓國은 國內體制的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社會文化的인 充實化를 安보정책의 基本方向으로 잡아왔다. 그러기 때문에 統一問題는 「先建設·後統一」로 상징되듯이 후퇴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비록 自由黨政府時代에 일시적으로 「北進統一論」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그것도 美國과 北韓에 대한 政治的 行動이었던 것이다⁸⁾.

5) 四大軍事路線은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軍의 幹部化, 裝備現代化」등을 뜻한다.

6) 北韓은 61年 7월에 「朝蘇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과 「朝中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刊, 「安保研究」創刊號, 1972, p. 109 參照

7) 1470年 11月 第5次黨大會에서의 金日成總括報告

8) Chung, In-Teik, *An Appraisal of the Unification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siatic Research Center, *op. cit.*, p. 1009.

50年代의 安保政策이 주로 防衛外交에 치중되는 外部指向의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60年代의 그것은 外部指向性和 內部指向性을 병행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60年代後半에 와서는 外部指向의 韓美協力보다도 內部指向의 內實化가 두드러졌다.

70年代에 들어 스자 韓國의 安保政策은 自主性에 바탕을 두는 內實化와 北韓을 對話의 對象으로 하는 緊張緩和로 安保를 유지하려는 國策이 더욱 뚜렷해 졌다. 그것을 端的으로 나타낸 것이 70年 8月 15일에 발표된 朴大統領의 「8·15宣言」이다. 이 宣言에서 北韓을 排除의 對象에서 「競爭의 對象」으로 暗示했고 競爭의 概念이 제시됐으며 北韓에게 武力統一과 暴力革命方式의 拋棄를 제의함으로써 平和統一의 路(緊張緩和를 위한 對話)을 터 놓게 되었다. 71年 봄의 北韓의 許淡에 의한 7個 項目提議⁹⁾ 8月の 大韓赤十字社에 의한 「離散家族찾기」의 提議등도 「8·15宣言」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南北韓의 安保政策이 對立的이며 기본적으로 統一과 關聯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우리는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첫째, 北韓의 公세적인 吸收主義나 積積極인 體制의 外延化企圖는 戰爭의 危險性을 內包하며 平和統一을 制約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吸收主義와 體制의 外延化를 이룩하려 할때는 共產主義의 革命理論에 따라 暴力의 手段이 사용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反對로 우리가 吸收主義와 體制의 外延化를 성급히 서두를 때는 戰爭의 防止를 위한 對話가 不可避하며 이것은 統一의 平和的 接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7·4共同聲明은 歷史的 意義를 갖는다고 하겠다.

둘째, 南北韓이 體制의 強化를 安保政策의 중요한 하나의 局面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吸收主義를 促進하여 戰爭의 危險性을 증대시키는 要因이 되기도 하나 反對로 對話와 競爭의 關係를 이루게 하기도 한다. 體制強化가 外延性을 가질 때 戰爭의 危險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內向에 머무를 때는 오히려 그 反對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統一問題는 早期에 이루어질 수 없음이 뚜렷하다. 다만 서로가 競爭關係下에서 對話와 漸進的인 統合을 추진할 수 있을 뿐이다.

2. 地理的 安保與件과 統一問題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우리 나라도 그 運命이 空間的인 概念의 地理的 位置 때문에 영향을 받아 왔고, 또 받고 있다. 우리 國土가 자리잡은 絕對的 位置와 그에 따라 생기는 相對的 位置에 의해서 時間概念의 歷史가 크게 規制되 왔던 것이다.

우리의 歷史에 큰 영향을 끼쳤던 韓半島의 地政學的인 特性은 크게 보아 中央的 位置에 있

9) 許淡이 제의한 項目은 ①美軍撤收 ②相互減軍 ③南韓의 모든 條約廢棄 ④南北韓 自由選舉에 의한 中央政府樹立; ⑤政黨社會團體의 完全自由 ⑥ 過渡措置의 聯邦制 ⑦南北經濟協力等이다(東亞日報社刊,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 1971. p. 326.)

다는 것과 週邊의 位置에 있다는 두가지라고 생각된다¹⁰⁾.

中央의 位置란 소련, 中國, 日本의 三大國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들 三國의 中央에 韓半島가 位置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東進——1850年代에서 1880年代까지에 東進이 가장 활발했지만——과 日本의 開化가 있기 까지는 이 三角中央의 位置概念이 성립될 수 없고 다만 中國大陸에 附屬된 位置概念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때의 우리의 運命은 中國大陸의 變動에서 큰 영향을 받는 것이었을 뿐이다. 中國大陸의 政權交替가 있을 때에는, 韓半島에도 戰爭의 危險이 증대하거나 政權交替까지 있었던 것이다¹¹⁾. 그러든 것이 소련의 東進과 日本의 開明後에는 三角의 힘이 韓半島에는 거의 等力으로 작용하여 相對的 概念에서 中央의 位置에 들게 되고 그에 따라 이들 三國의 영향력이 우리의 歷史決定에 큰 作用因子가 되었던 것이다.

小國을 가운데 두고 2個國以上の 大國이 利害를 달리 할 때는 大國들은 小國을 緩衝地로 存置시키려는 것이 常例이지만 그것은 잠적적이며 어느 한쪽이 그 小國을 장악하므로써 유리한 勢力關係를 유지하려는 일이 많다¹²⁾. 韓半島는 中央의 位置라는 地政學的 特性때문에 緩衝을 위한 現狀維持가 되도록 하는 힘의 作用이 있었던 반면에 한나라가 그곳에 獨占의 影響력을 보유하려는 作用도 있었다¹³⁾.

이러한 地政學的 與件과 分斷된 狀態下에서 關係되는 強大國들이 現狀維持(緩衝)를 취할 때는 戰爭의 위험이 줄어들지만 分斷狀態의 解消 즉 統一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影響력의 獨占化를 추구——이 경우 그 나라는 分斷된 2個의 個體中에서 어느 1個의 個體를 활용하게 되지만——할 때는 統一의 可能性은 커지나 戰爭이 거의 必然的이라고 할수 있다.

韓半島의 또 하나의 地政學的 特性은 週邊의 位置라는 점이다. Spykman이 말하는 이른바 大陸勢力과 海洋勢力의 中間的, 週邊의 地帶(Rimland)¹⁴⁾에 있으며 그것도 美國과 日本 소련과 中共——前 2 者는 海洋勢力이고 後 2 者는 大陸勢力이지만——의 世界四強의 週邊地帶인 것이다. H. Mackinder의 心臟地帶說(heartland theory)이든 Mahan의 海洋重視說까지도 각각 心臟大陸과 海洋을 기반으로 하여 反對地域으로 세력을 펼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大陸勢力과 海洋勢力은 週邊地帶에서 충돌하게 마련이다. 美國과 소련이 韓半島를 分斷시켜 國際의 境界를 만들어 우리 民族에게 安保와 統一問題를 잉태케한 것도 韓半島가 海洋과 大陸勢力의 週邊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海洋과 大陸勢力은 이 週邊地帶인 韓半島의 統一이 힘의 均衡을 깨뜨리는 結果가 될지도 모르는 狀況下에서

10) 表文化氏는 그의 著書「國防地政學」에서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로 여러가지를 들고 있지만 결국 中央의 位置와 週邊의 位置라는 二大特色으로 집약될 것이다.

11) 그 두드러진 歷史事例은 明清朝政權交替過程에 영향된 韓半島에서의 李朝로의 政權交替이다

12) 大橋武夫, 國家戰略, 昭46, pp. 30~44.

13) 1894年の 日清戰爭과 1904年の 日露戰爭은 韓半島에서의 一國의 影響力 獨占을 둘러싼 戰爭手段의 作用이었다.

14) N. J. Spykman, *The Geography of the Peace*, 1944.

라던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국가의 안보는 우리만의 안보이기 어려우며 統一問題도 錯雜性을 지니게 된다고 하겠다.

한편 韓半島는 週邊的 位置이면서도 大陸附屬性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韓半島는 아시아의 心臟地帶인 中國大陸에 陸續되어 있고 소련의 東方出口地帶와 陸續되어 있다. 이러한 地理的 位置에 있는 우리에게는 中共과 소련을 背景勢力으로 하고 있는 北으로 부터의 安보上의 壓力은 加重될 수 밖에 없다. 統一된 民族國家를 이루고 있었을 때에도 巨大한 大陸의 힘의 壓力을 받아 왔으므로 分斷된 후에는 南韓이 地理的으로 「半半島」가 되었으므로 威脅은 더욱 加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地理的 條件下에서는 北으로 부터의 壓力(威脅)에 대처할 우리의 힘은 優位에 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安보支援이 弱化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優位的 安보力량의 確保에 큰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地政學的 諸與件은 우리의 安보에 유리한 것 보다는 不利한 面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與件속에서 對北方政策 및 統一政策은 매우 制限의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強大國의 中央의 및 週邊的 位置에 있는 우리로서는 安보와 統一을 ① 強大國을 牽制, 均衡시키므로써 도모하는 方式, ② 強大國中 一部와의 同盟에 의해서 도모하는 方式, ③ 均衡, 牽制(그 하나의 變型인 脫圈)을 피하면서 自主의 安보 및 統一力량을 確保하는 方式中的 어떤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 方式은 不安한 獨立밖에는 없을 것이며, 統一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힘의 關係는 固定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第3의 方式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大陸附屬性이 강한 地政學的 位置에 있는 우리로서는 安보 및 統一을 ① 北方의 支援力량을 없애는 方式, ② 友邦의 힘을 抑制力으로 하는 方式, ③ 自立的 힘을 바탕으로 緊張緩和를 위한 直接的 措置를 취하는 方式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 方式은 源泉的으로 可能性이 적거나 아니면 現實性이 약하다. 따라서 戰爭의 위험과 北으로 부터의 「剩餘的 壓力」에 대비하면서 統一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마지막의 길밖에 없다고 하겠다.

앞에서는 地政學的인 側面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거니와 이제 國防地理的인 面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南韓의 國土形態는 正四方型의 「半半島」의 形狀이고 東西南北이 數百키로 以內에 들어가는 좁은 面積을 이루고 있다. 地域이 좁고 四方型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作戰線의 縱深이 淺음을 뜻한다. 作戰線의 縱深이 淺기 때문에 北韓의 어떤 基地에서 이륙한다고 해도 現代의 戰爆機면 全南韓地域에 數十分內에 이를 수 있으며 로케트攻擊이나 戰術核武器로 休戰線에서 攻擊을 할 경우에는 主要地域인 京仁地帶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機械工

51) 車胤,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와 韓國의 安全 保障, 韓半島, 1972年 1月號, p. 18

業과 全國富의 約半數가 집결된 京仁地帶가 戰爭이 일어날 경우 이렇게 큰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事實에 우리는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地形上으로 보면 南韓은 仁川과 서울 및 江原으로 연결되는 線이 北韓은 平壤과 元山線이 防衛의 適地가 될 것인데 鐵原, 金化, 平康의 楸哥嶺地區帶——이곳은 彼我間에 重要한 軍事的 意義가 있는 곳——로부터의 京仁으로의 壓力 및 近距離에 있는 休戰線으로 부터의 京仁地帶로의 壓力이 매우 크다.

이러한 國防地理的 不利益은 우리로 하여금 安保 및 統一問題를 ①北韓보다 優越한 國防力의 維持, ②緊張緩和에 의한 戰爭危險의 除去라는 두가지 길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길의 擇一이라기 보다는 兩者를 併行시키면서 狀況에 따라 어느 쪽으로의 置重이 있을 뿐이다.

3. 國際支援力減少와 統一問題

우리에 대한 國際的 支援源泉中에서 安保나 統一과 깊은 관련이 있는 國家나 機關은 美國, 日本, U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은 防衛를 擔保하는 하나의 支援支柱였고 日本은 經濟支援의 큰 源泉이며 UN은 正統性을 지원해준 機關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개의 源泉으로 부터의 支援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第2次大戰後에 계속하여 아시아의 自由諸國을 軍事的, 經濟的으로 뒷받침하여 왔던 미국은 앞으로는 越南戰과 같은 형태의 戰爭에 地上兵力을 파견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파견되어 있는 地上軍과 基地도 점차로 철수한다는 이른바 「Nixon Doctrine」을 집행중에 있다. 이 原則은 越南戰解決, 소련의 東南亞 集團安保構想에의 對處, 對中共 및 對日關係의 새로운 方向定立, 美國國內問題의 해결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政策이라고 하겠는데 1970年 7월에 越南戰의 越南化를 주창한데 이어 70年 2월에 議會에 보낸 外交敎書에서 구체적 計劃이 밝혀졌던 것이다¹⁶⁾.

「닉슨, 독트린」은 軍事面에서 ①公約의 遵守, ②同盟國에 대한 核防牌의 提供, ③其他被侵時에는 요구가 있을 때 軍事, 經濟援助를 하지만 人力은 當事國擔當等の 원칙으로 나타났었다.

이들 원칙은 우리로 보아 두가지 주목할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非核戰에 있어서는 友邦의 「要求」가 있을 때에 원조를 하겠다는 점이다. 미국이 우리와 맺은 防衛條約에서 즉각적인 兵力使用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人力」에 있어서는 當事國이 擔當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裝備와 物資支

16) 닉슨, 平和를 위한 새 戰略(1970年代의 美國 對外政策), 對議會報告書, 1972. 2. 18, 第2部 第3章 아시아 및 太平洋地域參照.

援을 할 수는 있지만 國民의 保護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地上兵力의 再投入을 하지 않겠다는 意思의 表明이기도 하다.

美國은 이 原則에 따라 기왕에 友邦에 주둔시켜던 軍隊의 감축을 촉진시켜 왔다. 70년에 비하여 아시아에 전개시킨 美軍兵力은 殆半이 감축되고 있다. 그리고 兵力減縮은 基地의 撤收를 수반하여 왔다¹⁷⁾.

兵력과 基地의 減縮은 직접적으로는 駐韓軍 및 그 基地의 撤收로 인해서 間接적으로는 아시아에서의 支援力量의 감소에 의해서 韓國의 安保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美國이 韓國에서 軍隊와 援助를 줄인다고는 하나 支援을 중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945年以來 美國은 韓國問題에 관련하는 過程에서 너무도 많은 利害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政治, 思想的 利益이 美國의 行動을 크게 規制할 것이다. 韓國에서 의 影響力을 拋棄하지 않으려면 支援의 계속과 緊張을 緩和하는 두가지 길 가운데서 하나를 擇하거나 併行시킬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므로서 南韓內의 親美的 性向을 유지하고 日本進出을 억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韓國政府를 安定시켜 美國의 利益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이런 것들은 統一問題와 관련시켜 볼 때 두가지 뜻을 지닌다.

하나는 共產統一을 美國이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고 그와 관련하여 소련이나, 中共과의 관계로 보아 現狀維持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美國의 對外政策의 基本은 大國主義와 「相關性理論」¹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서의 분쟁은 반드시 다른 지역에서의 緊張을 일으키고 반대로 한 부문에서의 進展은 다른 부문에서의 진전을 가져 오기 때문에 大國이 紛爭可能地域에서 긴장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緊張要因을 제거하려면 現狀維持의 線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大國主義와 相關性的 論理는 美國外交의 基本哲學이 되고 있다고만 할 수 없다. 소련이나 中共, 日本도 역시 그러한 思考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現狀維持는 外見上으로 보면 統一과 모순된다. 統一은 現狀打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平和統一로의 길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의 促進要因이 될 수도 있다. 現狀維持속에서의 緊張緩和는 결국 對話를 통한 統一을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現狀維持는 統一의 漸進的 方法論의 바탕이 된다고도 하겠다. 또한 그것은 戰爭誘發을 예방하는 機能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각도에서 생각하면 安保面에서도 중요한 뜻을 가진다.

UN은 韓國의 安保와 統一問題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國際的 要因이 되고 있다. 第2次大戰後에 韓半島의 問題는 UN의 問題이기도 하였는데 韓國의 獨立과 韓國戰爭 및 그 후

17) US News and world Report, Aug. 31, 1970.

18) 拙稿, 內外情勢속의 統一과 安保의 關係(講演要旨), 統一研究協會, 統一研究, 1972, 第1號

19) NewYorkTimes, 1972. 5. 24(동아일보전제)

의 歷史過程에 깊이 관련되어 왔다.

第2次大戰後에 國聯이 직면한 問題는 韓半島의 統一과 그것을 위한 總選舉의 實施였다. 이를 위해서 國聯은 그 監視下에 總選舉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지만 北韓으로 부터의 入北 拒絶로 可能한 地域에서만 선거가 실시되고 그 결과로 48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의 樹立에 이은 9月 9日 北韓政權이 成立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韓半島에는 個性이 뚜렷한 두개의 社會體制가 고정되기에 이르렀고 「唯一性」이 내세워 졌다. 國聯이 48年 12月 12日에 大韓民國政府만을 唯一合法政府로 決議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음에 따라, 分斷과 唯一性競合은 굳어 지기에 이른 것이다. 國聯이 大韓民國政府의 唯一性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韓國의 安保를 名分과 政治面에서 크게 뒷받침하는 機關이었다.

名分과 政治面에서 韓國의 安保를 뒷받침한 國聯은 韓國戰爭을 계기로 實質과 軍事面에서 그것을 保證하여 주었다. 北韓으로 부터의 侵攻이 있자 國聯은 國聯軍의 派遣에 의해서 그것을 막도록 하였고 아직도 國聯軍(실제로는 美軍이지만)이 韓半島의 平和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에서 韓半島의 問題는 南北韓間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國聯自體의 문제이기도 하였던 것이고 그에 따라 國聯은 韓半島의 統一을 위한 諸活動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²⁰⁾.

이렇게 韓半島의 統一과 韓國의 安保問題에 깊이 관련된 하나의 actor로서의 國聯은 休戰後 國聯에의 招請問題를 중심으로 하여 계속하여 韓國에 대한 支持率이 크게 줄어 들기에 이르렀다. 즉 1954年(9次總會)에는 韓國에 대한 支持 43, 反對 5, 棄權 10에 대해서 北韓에 대한 支持 9, 反對 39, 棄權 10 이던 것이 1970年(25次總會)에서는 韓國에 대한 支持 63, 反對 31, 棄權 25인데 대해서 北韓에 대한 支持 40, 反對 54, 棄權 25로 변모하여 갔다. 韓國에 대한 國聯의 절대적 支持가 상실되고 말았다. 이 사실은 大韓民國의 唯一性(安保)에 대한 중대한 挑戰要因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20餘年間に 걸쳐 國聯이 韓半島問題에 관해서 가졌던 몇가지 原則들 —— 國聯의 權威와 權能의 認定(對北韓), 國聯이 인정한 唯一의合法政府(大韓民國), 國聯監視下의 選舉(統一) —— 과 같은 硬直된 神通力이 점차로 영향을 잃고 사실상의 두개 國家의 存在를 인정하려는 風潮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²¹⁾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國聯에서의 韓國立場에 대한 支持率의 減少는 南北韓의 同時招請 (하나의 祖國속의 두개의 政府)으로 확대될지 모르며 南北韓의 同時加入으로 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安保뿐 아니라 統一問題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分斷國의 國聯同時加入이 불가피하다거나 또는 그렇게 豫測하는 사람²²⁾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것과 統一과의 관계에 대해

20)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50年 10月 7日(第次總會)에서 결정된 UNCURK설치와 그 活動이었다.

21) 防衛論集, 第10卷 第3號, 1971, p. 44.

22) 國聯事務總長이었던 「우·탄트」도 71年 9月 14日의 記者會見에서 分斷國의 國聯參與를 豫測한바 있다.

서는 두가지 相反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 否定的인 立場의 論據는 分斷國의 國聯加入이 分斷現狀을 固定化하므로써 統一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肯定的인 立場에 서는 사람들의 論據는 두개 政府의 存在를 인정하므로써 韓半島의 긴장을 완화하고 政府間의 접촉을 촉진하여 統一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國聯의 變質이 韓國의 安保에는 완전히 그리고 증대하게 試練要因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統一問題에는 그렇게 심각한 惡影響을 미치는 것이라고만 할수는 없다. 狀況을 善用한다면 安保와 統一에 모두 유리하게 사태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國聯과 관련하여 韓國의 安保와 統一問題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變質은 中共의 加入에서 생겼다. 51年 2月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한 國聯이 그 「侵略者」를 받아 들이게 되면 侵略者를 몰아 내는 役割을 하는 駐韓 UN軍의 性格에도 큰 問題가 제기될 수 있으며, 國聯의 安保理事國이 된 中共이 韓國의 安保와 상반되는 行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事實 中共은 國聯軍 및 UNCURK의 撤收와 解體를 國聯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形편이며 만약 韓半島에서 새로운 사태가 일어날 때 中共이 韓國을 위한 國聯軍活動을 막으려 할 것은 확실하다.

以上에서와 같은 國聯에서의 韓國問題와 관련된 狀況의 變質을 볼때 그것은 韓半島의 緊張緩和을 위한 새로운 發想을 낳게 하였다고 하겠고 韓半島問題의 自主的 解決을 위한 努力을 촉진하였다고 하겠다. 70年代에 나타난 美國의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을 위한 努力과 美·中共接觸에 따르는 中共態도의 柔軟化가 國聯의 움직임과도 無關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면에서 보면 國聯의 變質이 韓半島에서의 戰爭을 예방하는데 寄與했다고도 평가될지 모른다 美國과 中共의 態度變化가 결국 南北韓의 對話를 不可避하게 했다면 더욱 그러하다.

第2次 大戰後에 日本이 韓國의 安保에 크게 관계되기 시작한 것은 韓國戰爭때 부터였다. 특히 1951年 맺어진 美日安保條約(舊條約)에 따라 日本은 비록 美國의 절대적인 影響力下에서 이기는 했지만 韓國을 향한 發進 및 兵站基地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韓日關係라는 면에서 볼 때는 1965年 6월에 맺어진 韓日條約에서 비로소 日本의 韓半島에서의 역할이 싹텄다고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日本에게는 南韓이 중요한 利害地域이 되고 있다. 日本은 交易에 의해서 國家를 유지하고 있는데 南韓市場이 日本交易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市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韓國政府의 安定이 요구되고 安定을 위해서는 經濟支援을 계속하게 되어 韓國政府로 볼 때는 日本이 安保의 支援力량이 되었다.

韓國의 安定과 安全이 日本의 市場性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日本自體의 安全에도 중요한 뜻을 갖기에 이르자 日本은 「韓國의 安全은 日本自身の 安全에 있어 緊要(essential)하다」는 것을 公言하였던 것이다(1969年 11月 21日의 美日首腦의 共同聲明). 물론 이 共同聲明은 「오끼나와」의 施政權返還을 계기로 하여 美國과 韓國政府의 諸壓力에 대한 「保障發言」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²³⁾. 그러기 때문에 이 聲明이 나온 후의 中共과 北韓의 態度가 강경하여지자²⁴⁾ 日本의 態度는 점차로 變質되어 갔던 것이다. 특히 美國 大統領의 中共 및 소련訪問 후 日本의 新政權은 韓半島政策에 있어 南北韓에 대한 「差等距離」로 부터 「等距離外交」로 變質시키려는 듯한 印象마저 보이고 있다. 等距離政策은 中共과의 關係를 고려할 때, 日本으로 보아 거의 확정적인 것이 될지도 모른다. 10年後의 아시아를 想定할 때, 日本은 臨津江까지를 中共과의 影響圈의 分界線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戰後에 美蘇가 韓半島에서의 影響限界를 38度線으로 정했다는 점을 想起할 때 그것은 매우 중대한 뜻을 지닌다.

어떻든 日本은 經濟的 考慮에서나 政治·軍事的 考慮에서나 韓國政府와의 一方的인 協力關係를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데에 安保上的 問題가 생기고 있다. 또한 日本은 다른 어떤 關係列強보다도 韓半島의 現狀固定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民族의 統一指向性과 日本의 立場은 相衝될 것이다. 日本으로서의 어떤 형태의 통일도 바리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美國, UN, 日本이 모두 韓國安保에 대한 支援을 약화시키고 있고 南北韓의 同格化——적어도 北韓의 存在認定——를 지향하면서 그것의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는 現實에서는 民族과 國家의 安保나 統一問題는 결국 自體問題로 돌아 가게 마련이고, 그것은 對話에 의한 戰爭豫防과 統一摸索을 不可避하게 한다고 하겠다. 소련이나 中共도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 때문에 北韓에 대한 支援性格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4. 政治心理的 威脅과 統一問題

北韓으로 부터 가해 오는 政治的 威脅은 平壤政權이 正統性을 確立하려는 過程에서 그 手段으로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統一問題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이다. 平壤으로부터의 政治的 威脅은 內的으로는 「主體」와 관련된 政治不安造成을 위한 攻勢이고 外的으로는 正統性——또는 적어도 南韓과의 대등한 地位——을 확보하기 위한 韓國의 國際地位의 弱화와 孤立化攻勢였다고 하겠다.

政治攻勢가운데서도 韓國政府의 立場을 어렵게 한 것은 「外勢를 몰아 내고 같은 同胞끼리 統一을 協商하자」는 主張이었다고 생각된다. UN軍(美軍)의 駐留를 계속 인정하고 희망할 뿐만 아니라 「UN監視下의 統一」을 추구해 오고 있는 우리로서는 「民族主義」와 「愛國主義」의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北韓側의 이러한 攻勢가 挑戰要素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攻勢가 주로 南韓內의 勞動者, 農民, 인테리의 呼應을 받기 위한 것을 前提로 한다는 점에서 보

23) 防衛論叢, 前掲書, p.47.

24) 1970年 3月 29日字(로동신문)과 4月 7日의 「朝中共同聲明文 參照.

면 體制의 遠心作用 및 分裂化라는 政治的 威脅이 될 것이다²⁵⁾.

더욱이 그것이 60年代에 近代化過程을 거치는 동안에 파생된 몇가지 副作用과 결부된다면 政治的 不安定에서 國家的 不안전으로 발전시키는 要因이 될 수도 있다. 階層 및 地域間的 所得隔差와 여러가지 社會的 不條理現象은 하나의 矛盾要因인바 이 政治不安의 潛在性에 北韓의 攻勢가 하나의 觸媒를 위한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北韓으로 부터 가하여진 國際的 側面의 政治威脅中에서 두드러진 것은 友邦과 UN에 대한 態度變化였다. 態度變化의 基本模型은 中共의 그것을 거의 본뜨고 있고 「中共風」을 최대한으로 利用하는 것이었다.

韓國과 北韓을 비교할 때 70年代에 들어 오면서 서로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와의 交流에 있어서 北韓은 우리보다 유리하고 용이한 位置에 노이기 시작했다. 韓國政府의 信號에도 불구하고 모든 共產國은 우리와의 交流를 받아 들이지 않거나 소극적인데 대해서 非共產國의 對北韓態度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韓國政府의 唯一的 正統性은 큰 挑戰을 받아 왔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을 이용하여 北韓은 韓國과의 「國際的 等位」와 나아가 「正統化」를 위한 努力을 펴왔던 것이다. 北韓側의 韓國의 國際的 地位弱화라는 威脅은 가중되고 많은 實効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狀況展開(政治的 威脅의 加重化)는 統一問題를 「排除의 論理」에서 보다는 對話나 「競爭의 論理」에서 다루게 하였다고 하겠다.

政治的 威脅은 心理威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韓國의 安全을 制約하는 精神的 要素는 주로 北韓으로 부터의 心理攻勢라고 하는 外生的인 것과 우리 國民들 自體가 가지고 있는 精神的 脆弱性이라는 內生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外生的인 것 가운데서 精神的 不안전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의 하나는 唯一思想으로 보여진다. 唯一思想은 비록 그것이 統治的 性格을 지니는 것이기는 하나 北韓住民을 결속시키는 機能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唯一思想이 問題되는 것은 北韓住民에 대한 効用化手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南韓住民에게 주는 心理的 威脅性을 지닌다는 데 있다. 韓民族에게는 排日的인 民族主義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抗日鬪爭이 正統化와 正當化의 主要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는 唯一思想은 一般大衆에게 어떤 心理的 作用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北韓은 60年代 前半까지는 心理操作의 手段으로서 共產主義와 國際主義를 많이 活用하였으나 60年代 後半에 와서는 「兄弟國」을 내세우는 國際主義에서 內部指向의 民族主義的인 口號로 바뀌었다. 그러나 北韓에서의 「自主性擁護」는 唯一思想과 결부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25) 統一研修所, 民主統一論, 1972, p. 203.

韓半島에서의 緊張을 가중시키는 要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즉 歷史를 1950年의 그것으로 後退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 거기에 潛在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唯一思想이 共產主義理念의 南韓으로의 擴散企圖과 결부된다면 그 威脅性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解放에서 48年까지의 南韓住民에 대한 理念擴散의 心理攻勢는 北韓으로 부터 보다도 南韓에서의 內部發生的인 면이 더 컸다. 北韓에서는 南韓으로의 理念輸出보다도 自體內에서의 그것의 定着化에 더욱 注力했기 때문이다. 그때의 北韓의 共產主義指導者들은 「脫國際性」을 지닌 非共產勢力을 沒落시키는 일이 보다 중요했던 것이다²⁶⁾.

休戰後의 理念擴散을 위한 心理攻勢는 거의 北韓地域으로 부터 가하여 왔는바 南韓內의 共產勢力이 부리가 났기 때문이다. 休戰後의 歷史過程을 거치는 동안 北韓의 理念擴散을 위한 攻勢는 60年代 後半에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性格은 50年代까지의 그것과 많은 變質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50年代까지의 理念은 國際主義의인 性格이 密着된 것이었으나 60年代後半의 그것은 理念的 北韓에서의 定着化에 따라 主體性이 강조되는 民族主義의인 것과 결합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國際性和 결합된 理念的 擴散化는 어느 의미에서는 理論을 위한 理論의 注入에 그치게 된다는 점과 民族속에서 排斥당하기 쉽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效用性이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北韓內에 固着化된 理念——體制化가 現實化된 것——의 擴散工作活動과 그것이 民族主體性으로 彩色되었던 60年代後半의 心理攻勢는 心理的 威脅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社會主義建設을 완성하고 점차 共產主義에 이행할 수 있는 物質的 條件을 하루 속히 준비할 수록 祖國의 평화적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統一後에는…… 社會主義建設로 넘어간 후 南半部도, 점차 共產主義에 넘어 가야할 것 입니다」고 한 1958年 11月 2日 字 金日成의 演說²⁷⁾은 바로 그러한 威脅性의 加重化를 뜻한다고 하겠다.

北韓側의 理念과 體制의 擴散化企圖는 70年代에 들어 온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8·15宣言」이 있는 후에 나타난 北韓의 反應은 外交的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는 태도의 變化를 보였지만 精神面에서나 또는 직접적으로는 理念과 體制의 南韓으로의 擴散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理念과 體制의 擴散努力과 그것을 위한 心理攻勢가 계속되는 한 安保에 대한 精神面의 威脅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精神面에 가하여 오는 威脅量은 이쪽의 對應精神力에 의해서 加減되기 마련이다. 國民의 精神狀態가 건전하고 對應力을 가질 때는 威脅量은 완전히 없어지거나 不安全要素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반대 일때는 威脅量은 乘數作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精神對應能力이 그러한 心理的 威脅을 제거하기에 充分한 것이었다고

26) 그 代表的 對象勢力은 曹晚植 등의 民族勢力이었다.

27) 統一研修所, 前揭書, p. 300.

볼 수 있는가? 「反共精神의 全國化」가 心理的 威脅을 감당하는 데 있어 크게 寄與하여 온 것은 뚜렷하다. 그러나 그것은 外生的 心理攻勢에만 대항한다는 效果以上の 것이 되지는 못한다. 綜合的 安保力량의 基盤의 確固化를 위해서는 많은 內生的 問題性을 안고 있었다.

첫째로 그릇된 傳統意識에서 派生된 無行動性은 發展속에서의 國家保存을 制約했고 依托 心理는 主體的 自主的 國家保存意識을 약화시키고 있다²⁸⁾. 獨立國家의 國民이 國家運命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意志를 갖지 못할 때는 外部로 부터의 心理攻勢에도 勘當能力을 갖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消費性向의 心理가 函數的으로 再生産되고 있다. 높은 期待水準과 관련된 消費性向은 現實水準이 그에 따르지 못할 때는 挫折感(frustration)을 일으키거나 腐敗를 낳게 된다²⁹⁾. 消費性向이 높아진 것은 近代化作業을 이루어 가는 過程에서 생긴 副作用이라고도 할 수 있다. 社會指導層의 그릇된 大衆教育 所得增大에 따르는 急造的 高所得層의 不健全 趣向등이 그것을 자극했다고도 생각된다. 消費性向이 挫折感이나 腐敗現象을 파생시킬 때 共產勢力의 基盤素地가 되며 心理的 지탱력은 약화되게 마련이다³⁰⁾

앞에서 北韓으로 부터의 外生的인 心理的 威脅要素와 우리의 脆弱要素를 뽑아 보았거니와 그것은 南北關係나 統一問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위선 北으로 부터의 心理攻勢는 吸收主義와 관련된다. 즉 理念과 體制의 一方的인 統一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韓國이 지향하는 目標와는 葛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의 固執 또는 그러한 公세의 계속은 韓半島에서의 긴장을 증대시키는 結果가 된다. 더욱이 精神의 一方的 吸收를 강행하려 할 때는 武力戰爭의 危險性을 증대시킨다는데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一方的인 理念의 強要는 不信과 敵對的인 感情을 높이게 되며 民族的 文化의 統合을 저해하고 統一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結果가 된다. 따라서 戰爭을 防止하고 統一 基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緊張緩和과 努力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며 그런 努力을 뒷받침하는 精神淳化가 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結 論

以上에서 보았듯이 安保와 統一의 相關性은 뚜렷하다. 때로는 그것이 矛盾對立的이기도 하고 때로는 補完的이기도 하다. 地域內의인 安保라는 것에 重點을 둘 때는 우리의 目標과 상반되는 統一指向性은 安保와 크게 矛盾된다. 戰爭의 豫防이라는 것에 注重하여 생각할 때는 一見으로는 統一과 대립되며 一見으로는 補完的이기도 하다. 그리고 緊張緩和的인 安保는 平和統一指向에는 補完的이다.

28) 抽稿, 韓國의 政治狀況, 國防大學院, 國防研究 17號, 1965, pp. 64~65.

29) 上揭書

30) 抽稿, 韓國 國防의 非軍事的 側面, 韓國國防學會, 國防學報, 1970.

그러면 앞에서 보아온 安保狀況과 統一問題를 再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도 韓半島에는 南北韓의 對立性이 강하여 緊張要因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事實이다. 특히 北韓은 吸收主義에 입각한 理念과 體制의 南韓으로의 外延化를 攻勢적으로 아직도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韓國으로 보아서는 安保上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고 그러한 外延化가 보다 積極化될 때는 전쟁의 危險性이 있다는 점이다.

(2) 地理的인 측면과 관련시켜 볼 때 韓半島의 運命은 週邊強大國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韓國으로서는 安保上 不利한 位置에 있다. 이러한 狀況은 결국 統一思考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나 전쟁을 抑制하고 防衛하기 위한 諸措置가 先行되는 統一思考를 하게 할 것이다.

(3) 北韓보다 우월한 國際的 地位를 유지했던 韓國이 국제적인 資源의 減少壓力을 받게 됨에 따라 對北方政策에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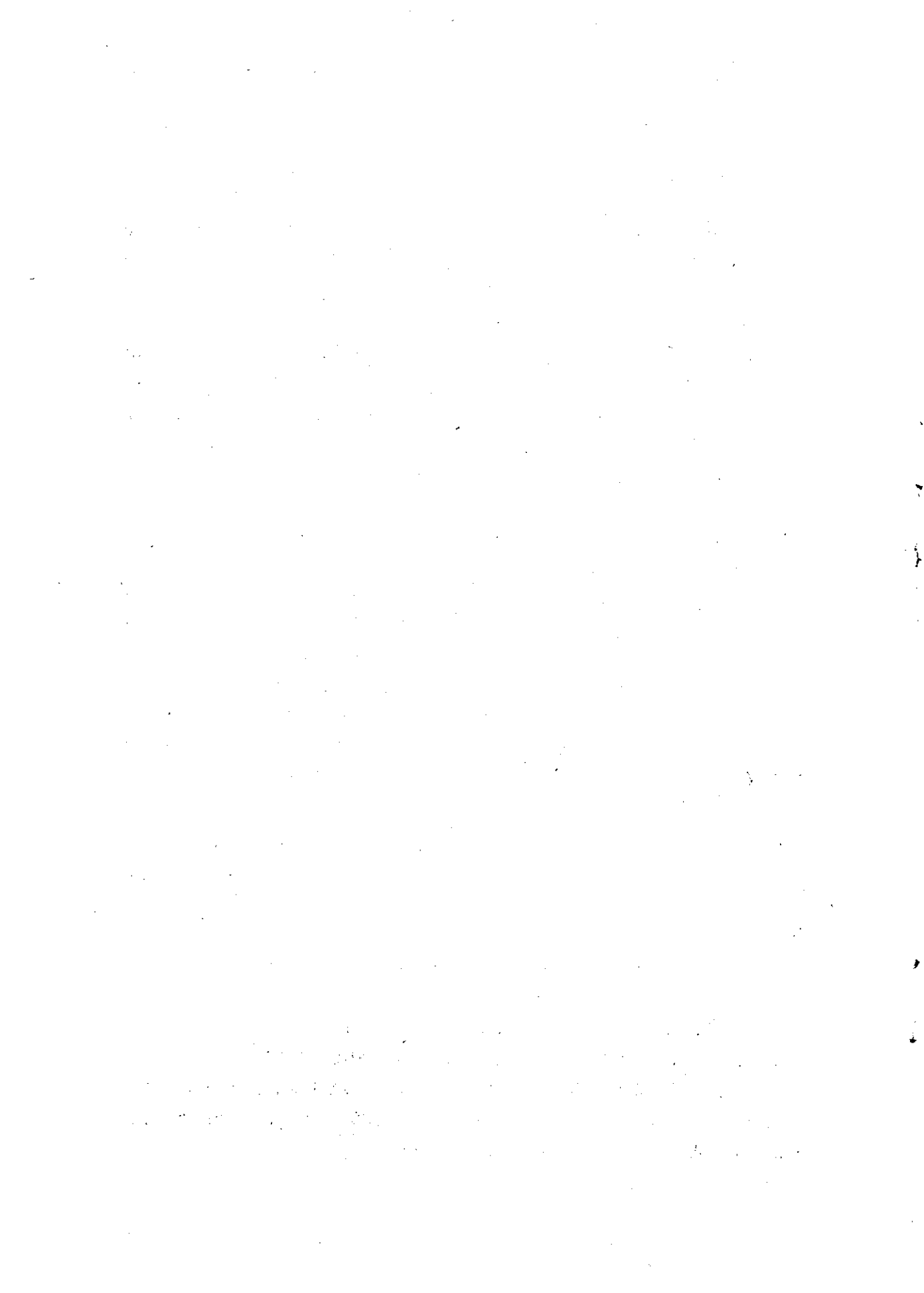
이러한 狀況下에서 戰爭을 회피(억제)하면서 統一을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分斷國家라고 하는 事實 때문에 韓民族으로서는 統一達成이라는 것이 至上의 目標이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統一이 至高善이기는 하나 平和와 安全을 위협하는 事態의 進進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戰爭危險을 다분히 內包하고 있는 一時解決의 統一論이라는 길을 擇할 수는 없으며 또 戰爭要因을 제거하기 위한 不斷의 努力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經濟와 社會開發의 競爭(相從理論)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면서 內向的 安保政策(힘의 蓄積)에 의해서 南北間의 一種의 安全關係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現實狀況으로 보아 安保狀況과 早期統一은 어려운 立場에 있다. 따라서 操急한 統一實現論은 統一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阻害하며 때에 따라서는 전쟁을 촉진할 것 같다는 것이다. 전쟁이 再發된다고 하더라도 內外環境으로 보아 統一의 不可能性은 남는 다는데 더욱 問題의 深刻性이 있다.

結局 우리의 統一은 戰爭抑制의인 安保措置와 병행하여 추구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戰爭抑制을 위해서는 對話의 계속과 힘의 蓄積이 不可避하다. 이것은 體制의 安保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차의 永遠한 民族의 安保를 위해서도 요청되는 일이다. 따라서 戰爭의 危險性을 내포하고 있는 統一의 「一時解決論」은 正當性과 現實性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統一에의 接近은 戰爭危險의 要因을 하나씩 段階的으로 제거하는 過程을 밟는 方法만이 正當性과 現實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狀況과 環境은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現在에 正統化된 것이 永遠히 正統化될 수는 없다. 不相從概念에서 相從概念으로 변했듯이 個體的 安保가 全體的 安保로 變質되지 않을 수 없는 環境에 이를 可能性도 있다. 그러므로 最善의 安保와 統一方法은 새로운 事態에 가장 잘 適應하여 져여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當爲만으로는 空想的 論理만 만들어 낼 뿐이며 現實의 世界에서는 實効性이 없기 때문이다.



Ⅱ. 韓國의 '安保와 共同聲明

1. 問題의 提起
2. 7.4 共同聲明의 背景
3. 北韓의 平和攻勢의 底意
4. 結論 (對話를 위한 安保對策)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HISTORY OF

THE WORLD

韓國의 安保와 共同聲明

李 基 遠

1. 問題의 提起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던 1972年 7月 4日—이 날은 분명히 한마디로 衝擊的이며 깊은 感銘을 자아낸 날이었다. 이제까지 想像으로만 可能하던 世界의 一端이 생생한 現實로서 우리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우리는 確實히 重大한 變化와 新境地開拓의 歷史的時點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에는 <平和統一의 促進>을 위한 姿勢가 있고 <民族問題擔當>의 決意가 있고 <單一民族의 大團結>이라는 視線¹⁾이 있었던 것이다.

李厚洛中央情報部長과 金英柱 黨組織指導部長이 서로 上部의 뜻을 받들어 共同聲明한 聲明은 祖國統一을 위하여

첫째 外勢에 依存하거나 干涉을 받지 않는 自主의 統一

둘째 武力行使를 지양한 平和的方法

세째 思想, 理念 및 制度를 초월한 民族의 大團結等 諸原則을 確認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民族을 초월할 수 없으며 어떠한 思考나 行動도 民族과 結付될 때만 그 價値를 發揮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外勢의 作用이나 干涉도 排擊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同族끼리의 相爭을 回避하고 平和的으로 民族의 統一을 이룩해 보려는 意志의 表現이었다.

우리는 아시아大陸의 一角에서 數千年동안 固有의 말과 글과 風俗과 文化를 지켜온 世界에서도 드물게 볼 수 있는 單一民族이다. 巨大한 中國과 戰鬪的인 日本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1) 政經研究, 1972年 8月號

“7.4 共同聲明을 계기로 본 朴大統領의 決斷과 平和統一의 諸段階” p. 18.

民族의主體性을 守護하려는 努力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努力은 決코 헛될 수가 없었다. 우리 民族에게는 8·15解放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民族의 團結을 위한 絶好의 機會였다. 그러나 東西冷戰의 祭物로 韓民族은 南北으로 갈라졌으며 6·25韓國戰爭은 南北間에 憎惡의 感情만 심어놓고 再結合의 可能性을 말살해버렸던 것이다.

再結合은 고사하고 南北間에는 異民族끼리에 못지 않는 敵對感情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事態는 바야흐로 第2의 韓國戰爭을 가져올지도 모를 一觸即發의 瞬間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시아의 火藥庫>로 惡名높은 冷戰의 얼음이 녹을 줄 모른 4半世紀였다. 南北間의 對話란 꿈에도 想像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랬기에 우리 民族의 苦痛은 文字 그대로 累積되어 갈 뿐이었다.

이런 時點에서 7·4共同聲明이 發表되었던 것이다. 世界政治史에 있어서 <客體에서 主體>에로의 大前進을 決行한 民族의 指導者인 朴大統領의 英斷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一大英斷의 背景은 무엇일까?

7·4南北共同聲明은 100리나들이길에 이제 겨우 한발을 내어디딘것에 지나지 않는다. 李部長도 그 背景說明에서 다짐하고 있드시 7·4聲明은 <對話없는 對決>에서 <對話 있는 對決>로 바뀌진 하나의 契機로 보아야 할진대. 지난 날의 冷戰外交보다 오늘날의 多角外交가 더 힘들듯이 <對話 있는 對決>은 지난날의 <對話 없는 對決>보다 더 어려움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들어닥칠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體制와 體制間의 平和의인 競爭을 敢行하는 마당에서 우리는 우리 體制의 優位性을 證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安全保障이 先行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對話時代를 맞이하는 이 마당에 있어 우리의 安全保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課題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對話있는 對決에서의 安全保障은 軍事的要素以上으로 非軍事的要素가 優先하는 總力戰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2. 7·4聲명의 背景

가. 國際情勢面

美國과 소聯을 各己의 核으로 하는 두個의 陣營이라는 戰後體制는 급기야 崩壞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대신할 새로운 世界秩序가 形成되어 가고 있다. 즉, 美, 소, 中共, 日本 및 西歐等 5大勢力圈을 中心으로 한 勢力均衡體制가 構築되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各國은 從前까지의 絶對的 安全保障을 止揚하고 相對的 安全保障을 追求하고 軍事的對決보다 政治協商이 尊重되고 競爭과 協調가 모색되는 가운데 相互 견제作用을 계율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不安全한 것이기는 하나 平和가 維持되고 이데올로기의 求心力이 全的으로는 消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데올로기 보다는 國家的實利를 陣營보다

는 個個國家를 더 重要視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多極化現象이 進展되고 있는 가운데서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4大國關係는 從前과는 判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첫째, 不均衡한 힘의 關係가 더욱 顯著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美國과 소聯은 共히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또한 軍事的으로나를 莫論하고 超強大國임에 틀림없다. 이에 對하여 中共은 政治大國으로 登場하였으며 日本은 單純히 經濟大國으로 成長하였다. 더우기 美·소兩國에 對하여 日本과 中共의 軍事力량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隔差가 擴大되리라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둘째, 4大國間에는 相互交流와 協力關係가 매우 急速度로 進展되어 갈것이라는 點이다. 즉 일찌기 冷戰時代에는 美國과 日本, 소聯과 中共間의 交流 乃至 協力만이 있었다. 그러나 中 소紛爭이 일어나고 美·소間에 接近이 試圖되기 시작할 무렵을 契機로 美國과 소聯 및 美國과 日本間의 交流로 그 構造가 變形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것이 美中共接近以後에는 美國과 소聯, 美國과 日本間의 相互交流以外에 美國과 中共, 日本과 소聯間의 協調關係가 追加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日·中共接近以後에는 美國과 소聯, 美國과 日本, 美國과 中共, 日本과 소聯, 日本과 中共, 소聯과 中共間의 相互交流와 協力關係가 多樣하게 展開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冷戰時代보다 多極化時代에는 相互牽制作用이 매우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즉 中共의 進出에 對해서는 美·소·日이 牽制하며 소聯의 進出에 對해서는 美, 日, 中共의 견제를 받고 日本의 軍國化 可能性에 對해서는 美, 소, 中共의 견제를 받게 된다. 또한 美·소兩國의 支配體制에 對해서는 日本과 中共의 挑戰을 받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와같은 相互 견제作用은 結果的으로 國際的緊張을 緩和시킴으로서 戰爭勃發을 最大로 抑止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情勢 가운데서의 列強의 對韓半島政策을 評價하면 다음과 같다.

(1) 美國……닉슨大統領이 非美國化政策을 積極的으로 展開하기 시작하면서 美國은 對中共接近을 試圖하였다. 美國의 對中共接近은 周邊에 있어서의 緊張緩和가 必要했다. 그 가운데서도 韓半島에 있어서의 現狀維持에 依한 南北韓間의 平和維持는 매우 重要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美國은 韓半島全體가 反美的인 存在가 되거나 美國에 反對하는 나라의 手에 들어가는 것에 對해서는 反對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美國은 南韓이 美國과 友好關係를 維持해 나가는 것으로서 滿足하고 北韓까지를 그影響下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基本政策이었다²⁾. 더우기 美國은 오늘날 軍事的介入을 最少限으로 줄이면서 韓半島에서의 分斷狀態의 安定을 最大限으로 補強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南北韓이 各己 政治秩序의 基本을 維持하면서 彼此 武力行使의 意圖를 갖지 않게 될 段階에 까지 敵對

2) 上揭書, “서울—平壤政治會談이 投射하는 國際關係”(李承憲) p. 55.

意識과 敵對關係를 減少시킬 것, 그리고 그 方法으로서 南北韓接觸이 시작되고 擴大發展될 것, 南北韓이 다같이 軍事力을 最少限으로 保有할 것등을 願하고³⁾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國際的으로는 南北韓의 共存을 前提로 列強間에 韓半島에서의 現狀維持를 公式化하려 할 기미가 없지 않다. 이와같이 美國의 政策은 韓半島의 分割現狀을 凍結시키는 國際政治的 力關係의 構造의 變化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더욱 促進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 소聯……소聯은 韓半島에서의 美·소間의 均衡을 考慮하여 美國과 더불어 戰後處理問題인 韓半島問題에 깊이 코뮤티되어 왔다. 韓半島問題가 잘못 處理되면 美소의 世界政治 및 軍事戰略의 均衡을 깨트릴 可能性이 있는 噴火口의 要因임을 認識하고 있기 때문에 소聯은 對北韓政策에 있어 美國의 對韓政策과 비슷한 形式의 勢力均衡을 維持하려고 努力하였다.⁴⁾

그렇다고 해서 소聯이 韓國에 對하여 敢行하고 있는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을 否認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決코 안된다. 다만, 소聯은 世界大戰으로 發展할 危險성이 있는 美國과의 直接的인 對決은 가능한 限 回避한다는 立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銘心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聯은 日本이나 中共과의 關係로 보아서도 韓半島에서의 現狀維持政策을 追求하는 面이 있음을 우리는 看過할수 없을 것이다. 즉 韓半島에서의 現狀維持는 南北韓間의 敵對關係의 發展에 따른 紛爭發生 可能性을 減少시키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서 日本의 軍事力強化의 口實을 除去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美中共接近을 契機로 中共과의 戰爭에 있어 軍事的 勝利를 소聯이 期待할 수 없을 진대는 아시아의 火藥庫로서 注目을 끄는 韓半島의 安定化는 소聯으로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3) 中共……中共은 韓國戰爭에의 不法介入을 契機로 韓半島問題에 깊숙히 關與하게 되었으며 그 後 中共은 이 事實을 北韓에 對한 影響力 形成에 最大限으로 利用하였다. 특히 美소平和共存體制形成을 前後하여 發生한 中소紛爭에 있어서 中共은 北韓을 對소優位를 위한 因子로서 確保하고 有利한 高地로서 利用하려 했다는 事實은 世上에 널리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특히 中共은 소聯을 견제하는 한편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美國勢力의 後退와 이에 따른 日本勢力의 登場을 막기 위하여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改善에 拍車를 加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關係改善의 先行條件으로서는 恒常 韓半島問題가 重要한 課題의 하나가 아닐수 없었다. 이러한 韓半島問題에 있어 兩者間에 了解할 수 있는 最大公約數는 現狀維持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現狀維持야 말로 美國과 中共 또는 日本과 中共間에 利害關係를 같이 할수 있는 最少限의 條件일 것이다. 여기에 있어 中共은 北韓의 對南 赤化統一을 위한 現狀打破의 中間段階로서의 現狀維持를 戰略的으로 追求하기에 이른 것이다.

(4) 日本……冷戰時代に 美國의 核兩傘아래 오로지 經濟的인 繁榮에만 拍車를 加하던 日本

3) 上掲書, p. 60.

4) 上掲書, p. 60.

은 급기야 <世界的 經濟的 第3強>으로 까지 成長하게 되었다. 이러한 日本은 65年의 韓國과 의 國交正常化를 契機로 韓半島問題에 關心을 갖게 되었으며 69年 11月의 사포-닉슨 共同 聲明以後 韓半島問題에 利害關係를 갖는 나라로서 登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狀況에서 日本은 政經分離原則의 口實 밑에서 經濟面에서의 北韓과의 交流를 制限 하지 않았다.

日·中共國交正常化를 契機로 日本은 南北韓에 對한 等距離外交를 더욱 推進함으로써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에 寄與한다고 看做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以上에서 우리는 國際情勢를 概觀하고 아울러 列強들의 韓半島政策을 매우 概括的으로 檢討하였다. 國際情勢는 어느 面에서 보면 平和指向의이며 列強들은 可能한 限 緊張을 緩和시키기 위해서 現狀凍結을 希望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우리의 宿願인 平和的인 國土統一은 이제 남의 責任에만 돌리고 있을 處地가 되지 못하였다. 國土統一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課題로 提起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限에는 무엇보다도 南北韓의 對話에 依한 統一의 실마리가 무엇보다도 急先務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7·4共同聲明은 바로 이러한 우리 統一意志의 初步的인 所産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北韓情勢面

(1) 政治面……北韓의 權力構造는 形式上 立法, 行政 및 司法의 三權分立의 形態를 取하고 있지만 實際는 共產黨인 <朝鮮勞動黨>이 三權의 위에서 一黨獨裁를 具現하고 있는 典型的인 共產主義體制를 이루고 있다.

立法機關으로는 最高人民會議가 있어 457個選舉區에서의 任期4年의 代談員 457名으로 構成되어 年2回의 人民會議를 開催할 뿐이며 其他의 機關으로는 3個의 常設委員會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司法機關으로는 最高裁判所, 最高檢察所가 있다.

內閣은 首相과 副首相(8名), 그리고 34個의 委員會 및 省의 長들로 構成, 全員會議와 首相, 副首相이 參席하는 常務會議로 區分되어 있다. 그러나 勞動黨이 勞動階級の 組織된 部隊로서 政治, 行政, 經濟, 軍事等 全般에 걸쳐 絕對權力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黨의 機能인 指導와 統制를 制度化하고 있는 것으로서 黨秘書局에 內閣의 各省의 機能에 해당하는 部, 局을 두고 있는 點, 그리고 各省의 相들이 黨의 副部長級에 해당된다는 現實로서 理解될 수 있다. 黨은 表面上 黨大會 밑에 中央委 그 밑에 政治委가 位置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事實上 이 政治委라는 것이 소聯이나 中共의 政治局에 해당되는 權力的 核心體로 되어 있다. 이 政治委員會는 지난 70年 11月 勞動黨 5次全黨大會에서 委任選出된 金日成等 11名으로 構成되어 있는바 이 政治委員들의 序列이 바로 北韓權力者의 序列이기도 한 것이다.

政治委員會의 執行機構는 秘書局이 있고 秘書局에 各부와 局이 있어 모든 政策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內閣의 各省은 이를 執行하는 機構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勞動黨은 行政 및 生産單位에까지 그 組織을 浸透시켜 道委員會, 市委員會, 郡委員會 및

里委員會를 두고 工場, 協同農場, 學校 및 人民軍單位部隊에까지 熱誠黨員으로 委員會를 構成하며 모든 일에 일일이 干與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의 政治組織은 形式上 黨과 行政의 二元組織으로 되어있으나 實은 바로 黨의 움직임으로 一元化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位置의 勞動黨에서 總書記를 그리고 內閣에서 首相을 맡고 있는 金日成은 모든 權力的 頂上으로 名實相符한 一人獨裁體制를 具現시키고 있으며 이 一人獨裁體制는 金日成의 唯一思想에 依하여 더욱 組織化되고 또한 強化되고 있는 것이다.

(2) 經濟面……北韓의 經濟는 生産을 意味하며 分配나 流通, 消費等은 生産의 補助機能을 다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⁵⁾ 철저한 計劃經濟로서 3個年 5個年 및 7個年等の 計劃이 實施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計劃은 一種의 〈生産命令〉으로서 組織化된 人口와 金日成이 意圖한 바대로 움직이도록 強要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北韓의 經濟活動이기도 한 것이다.

61년부터 70년까지의 期間中 工業總生産이 230% 增加했다는 것이⁶⁾ 北韓側 發表인 바 이것을 年平均으로 計算하면 12.8%의 高度成長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北韓에 있어 總工業투자의 8割은 重工業分野에 集中되었으며 消費財生産이 크게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重工業優先은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絕對的 命題〉라 主張하고 消費를 最大限으로 抑制하며 蓄積率을 높혀 高度의 經濟成長率을 올리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⁷⁾

北韓이 重工業을 優先하는 目的은 表面上으로는 擴大再生産의 促進을 내세우고 있지만 實際로는 軍事力強化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1967年以前에 每年 發表한 豫算項目 가운데 軍事費가 不過 3~8%⁸⁾로 되어 있었지만 實祭로 軍事力을 急速度로 強化하여 온 것은 重工業 가운데 潛在的 軍需工業이 큰 比重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北韓은 1964年의 國際的緊張을 契機로 軍事力을 強하게 集中적으로 투자하기에 이르렀다. 1966年 10월에 開催되었던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金日成은 “조성된 情勢에서 社會主義 經濟建設을 推進시키면서 이와 병행하여 國防建設을 더욱 強力히 進行해야 한다”⁹⁾고 말했고 또한 “오늘 우리의 革命鬪爭과 建設事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조성된 情勢의 要求에 맞게 社會主義建設의 全般的 事業을 改編하며…… 國防力을 더욱 強化할 수 있도록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併進시키는 것”¹⁰⁾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金日成의 命令은 7個年計劃에서 豫定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資源을 軍事力 強化에 돌리고 同時에 同計劃을 中途에 軍事力의 一層 強化를 위하여 修正改編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程度였다.

5) 朝鮮日報, 1972. 7. 8(土)

“斷絕 27年, 北의 實相” 5面.

6) 朝鮮日報, 1972. 7. 8(土)

“斷絕 27年, 北의 實相” 5面.

7)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黨總鑑, 1972 p. 971.

8) 極東問題研究所: 上揭書, p. 971.

9) 1966年 10월에 開催된 勞動黨 代表者 會議에서의 金日成演說.

10) 上記 演說.

經濟發展과 軍事力 強化의 併進政策은 軍事力의 集中的 強化政策을 意味하는 바 즉 北韓 人民軍의 장비強化 勞農赤衛隊의 무장 後方의 防禦工事에 所要되는 것을 充分히 供給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

어쨌든 北韓의 經濟는 住民들의 最少限의 生活保障을 除外하고는 오로지 軍事力 增強과 직접되어 있다는데 特徵이 있는 것이다.

(3) 軍事面……이른바 人民軍은 1946年을 시발로 당시의 保安隊, 國境警備隊, 海岸警備隊를 主軸으로 發足된 것인데 48年 2月 8日 正式으로 所謂〈朝鮮人民軍〉이란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現在 兵力은 約46~47萬이며 이 밖에 勞農赤衛隊 140萬, 青年近衛隊 70萬을 保有하고 있다.

北韓의 國防機構는 北韓憲法 第100條에 根據하여 構成되어 있고 軍의 最高統帥權은 法制上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委員會長에 屬해 있으나 實際로는 勞動黨이 掌握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權限은 金日成에게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國防機構의 形態는 平時 및 戰時體制로 나누어 平時에는 民族保衛相이 軍事委員會委員長이로부터 軍統帥權을 委任받아 軍政 및 軍令을 行하며 戰時에는 軍事委員會의 委員長인 金日成이 隸下機關인 道, 市 등의 地方軍政部를 通하여 軍隊는 勿論 一般住民들까지도 管掌한다. 北韓은 그들의 軍事路線을 첫째 全軍의 幹部化 둘째 全軍의 現代化 셋째 全住民의 무장화 넷째 全國土의 要塞化라고 定해 놓고 軍隊는 勿論 北韓에 있는 全住民들까지도 무장시켰다.

北韓의 地上軍은 2個集團軍 6個軍團 20個步兵師團, 2個裝甲師團, 5個步兵旅團, 15,000名의 特別襲擊部隊等 總37萬의 兵力으로 編成되어 있다¹²⁾ 이들의 主力은 休戰線北方에 配置되어 있고 平壤을 中心으로 한 地域에 後方部隊가 配置되어 있다. 特히 地上軍은 우리 나라 地形에 適應할 수 있도록 하는 同時에 速攻을 위하여 輕步兵部隊를 編成하고 있다.

海軍은 13,000名의 兵力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潛水艦 4隻, 미사일哨戒艇 4隻 高速魚雷艇 50隻, 掃海艇 10隻 등으로 장비되어 있으며¹³⁾ 司令部는 平壤에 位置하고 있다. 그 隸下에 淸津, 金策 新浦 元山等 6個所를 管掌하고 있는 東海司令部를 元山에 두고 龍岩浦, 鐵山, 南浦, 椒島等 5個所를 管掌하는 西海司令部는 南浦에 두고 있다. 海軍 亦是 奇襲攻擊에 有利한 高速魚雷艇을 장비함으로써 沿岸海軍으로서의 機能을 強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空軍의 兵力은 33,000餘名으로 MIG-21 90台 MIG-19 20台 MIG-17 340台 MIG-1560台와 輕爆擊機 130台等 700台에 達하는 航空機를 保有하고 있다. 이러한 空軍은 防空戰團幾部隊 4個師團, 地上攻擊부대 1個師團, 爆擊機부대 1個師團으로 編成되어 있는바 戰團機의 主力부대는 39°線을 基線으로 南西地域에 基地를 두고 있으며 後方支援부대는 鴨綠江周邊地域에 配置하고 있다. ¹⁴⁾

11) 極東問題研究所, 前掲書, p. 972.

12) 朝鮮日報, 1972. 7. 8(土) 4面.

13) 朝鮮日報, 1972. 7. 8(土) 4面.

14) 朝鮮日報, 1972. 7. 8(土) 4面.

또한 空軍은 中 소國防空體制속에 包含되어 있으며 別途로 朝中合同防空地域을 設定해 놓고 있다. 15)

以上에서 우리는 北韓의 政治, 經濟 및 軍事等 諸要素의 情勢를 概觀하였다. 즉 北韓은 南韓의 赤化統一이라는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6·25韓國戰爭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軍事力을 強化하는데 오로지 全力을 傾注하였으며 北韓은 文字 그대로 兵營化되어 있다. 政治的으로는 金日成 유일思想體系에 依한 一人獨裁體制를 갖추는 同時에 一旦有事時 國民的인 團結을 圖謀하기 위하여 組織化해 놓았으며 經濟的으로는 北韓주민들의 消費生活을 副次的인 것으로서 오로지 重工業優先이라는 口實아래 軍需工業에 拍車를 加했으며 軍事的으로는 速戰速決을 위한 臨戰態勢를 갖추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萬般의 準備를 完了한 北韓은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合法則性이라는 戰略構想으로서 오로지 機會포착만을 노리고 있는 實情에 있는 것이다. 北韓은 4大軍事路線을 더욱 固守하고 또 全주민을 組織化하고 即時動員이 可能토록 社會生活을 規制化하는 등으로 機會만을 노리고 있다는 判斷에 到達하게 되었다는 李部長의 背景說明도 바로 이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北韓의 平和攻勢의 底意

7. 4共同聲明은 國際的인 與件, 北韓의 對南赤化統一을 目標로 한 戰爭準備의 完了 및 韓國의 國力蓄積等 諸要素의 複合的인 所產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重要한 要素는 北韓이 戰爭準備를 完了하고 南侵을 위한 機會만을 노리고 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李部長은 背景說明에서 6·25韓國戰爭以上の 慘禍를 우리 民族에게 안겨다 줄 第二의 韓國戰爭은 어떠한 手段을 쓰더라도 迴避되어야 한다는 命題 아래 北韓의 金英柱 黨組織指導部長과의 交渉을 試圖했던 것이다. 16)

이와 같이 우리는 異端的인 아닌 主體思想과 民族의 正統性에 立脚하여 民族의 慘禍를 未然에 防止해 보자는 衷心에서 對北交渉의 실마리를 찾았던 것이다. 이에 對하여 北韓이 交渉에 應한 理由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北韓도 우리 韓國과 같이 이 땅에 平和를 가져와 自主的이며 平和的인 統一을 達成함으로써 民族的인 繁榮을 누리게 하겠다는 理由에서 7·4共同聲明에 合意를 보게 되었던 것일까?

勿論 事物을 否定的인 立場에서 觀察한다면 否定的인 結論이 導出되기 마련임에 틀림 없다. 北韓의 立場을 否定的인 觀點에서 評價하는 데는 問題가 없는 바 아니나 그동안의 北韓을 생각할때 樂觀的으로 解釋하기에는 너무나도 距離가 있음을 우리는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北韓은 1954年以來 機會있을 때마다 위장된 平和攻勢를 展開해 왔기 때문이다.

15) 朝鮮日報, 1972. 7. 8(土) 4面.

16) 7·4共同聲明 發表와 관련된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의 背景說明.

그리고 이러한 平和攻勢는 最近에 와서 더욱 活潑하게 展開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그 몇가지의 예를 들어 본다면 첫째 南北韓의 緊張緩和提議이다. 72年 1月 10日 金日成은 “南北이 平和協定을 締結하고 서로 相對方을 攻擊치 않을 것을 宣言하고 南朝鮮에서 美帝國主義侵略을 撤退시키는 條件에서 南北朝鮮의 兵力을 大幅 縮少할 것을 主張한다”고 했다. 그리고 71年 9月 25日에는 美軍의 南韓撤退와 더불어 〈韓美軍事同盟〉 〈韓日軍事同盟〉 (이것은 存在하지 않는다)의 廢棄를 要求하고 “平和統一에 妨害가 된다면 朝鮮이 소聯 및 中國과 맺은 軍事同盟을 同時에 廢棄해도 좋다”고 言明했으며 심지어는 統一後의 韓國은 어떤 나라들과도 軍事同盟을 맺지 않고 말하자면〈中立型〉의 나라를 志向하는 構想을 폈다. 17)

둘째의 예는 南北政治協商的 提議이다. 이것은 決코 새로운 提案은 아니지만 72年 1月 10日과 4月 28日 다시 提議하였다. 18) 그는 이 協商에서 民主共和黨을 包含한 諸政黨이 祖國의 平和的 統一에 關한 “合理的 方途를 模索하는 雙務的 또는 多務的 交涉을 활발히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하는 한편 美軍의 撤退를 政治協商的 前提로는 보지 않고 “政治協商을 열음으로써 美軍도 더욱 빨리 撤兵시킨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

세째의 예는 南北聯邦案 提議이다. 60年 8月 14日 처음 提議했던 이 提案을 72年 4月 28日에도 다시금 提議하였다. 金日成은 南韓에 “社會主義를 強要하지 않고” 거꾸로 北韓은 “資本主義를 強要당해도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고 斷言하면서도 聯邦制度가 外國과의 平和共存과는 別個의 問題라는 點을 強調하였다. 20)

이 외에도 金日成은 思想, 政治, 經濟 및 軍事的 側面에서의 自主성을 誇示한다든가 對日 外交의 積極化 등이 平和攻勢의 例로서 꼽힐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은 7·4共同聲明을 前後하여 積極的인 平和攻勢를 取하고 있는 것이며 其實은 7·4共同聲明에 對한 合意도 一種의 平和攻勢인지도 모른다.

7·4共同聲明은 自主的 平和統一의 大原則아래 7個項에 合意하고 있으나 그底邊에 關涉하는 가장 核心的인 것은 平和統一의 前提로서 南北韓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軍事的衝突을 防止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相對方을 中傷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무장挑發하지 않는다는 것에 意見을 모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最近 外信이 傳하는 바에 依하면 北韓은 韓國을 中傷 비방하고 있다고 한다. 21)

어째든 北韓이 對南赤化統一이라는 目標을 拋棄하지 않는 限 北韓의 平和攻勢는 위장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平和攻勢를 北韓이 展開하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17) 國防大學院 附設 安保問題研究所, 安保政策研究 시리즈 72-8, “北韓의 平和攻勢에 對한 對備策” p. 29.

18) 國防大學院 附設 安保問題研究所, 上揭書, p. 29.

19) 國防大學院 附設 安保問題研究所, 上揭書, p. 29.

20) 國防大學院 附設 安保問題研究所, 上揭書, pp. 29-30.

21) 中央日報, 1972. 10. 4(水) 1面 “韓半島에 다시 冷氣流”.

中央日報, 1972. 10. 9(月) 1面 “유엔軍機動訓練 北韓通信서 비난”.

中央日報, 1972. 10. 10(火) 1面 “南北 赤十字회담 北韓內意見대립”等 參照.

속셈이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 그 몇가지의 底意를 列擧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金日成 一人獨裁體制의 合理化라는 底意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즉 北韓은 그 동안 所謂〈美帝國主義者의 侵略戰爭〉이라는 허망된 口號아래 北韓주민들의 出血을 強要하는 同時에 金日成 一人獨裁體制를 強化했던 것이다. 勿論〈美國의 侵略戰爭〉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美國은 오히려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平和秩序를 摸索하기 위하여 國際的緊張緩和에 앞장서고 對決時代를 對話의 時代로 轉換시키는데 큰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外部世界와의 接觸을 徹底하게 차단하고 있는 北韓이라 할지라도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이나 소聯訪問을 北韓住民들에게 傳達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公여지책으로 닉슨大統領이 〈白旗를 들고 北京에 왔다〉고 北韓은 떠들어 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臨機應變의인 金日成의 北韓住民들에 對한 宣傳은 限界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北韓住民들도 具體的으로는 모르지만 周邊情勢가 무엇인가 變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感知하면서 金日成이 主張하는〈美帝國主義者의 侵略戰爭挑發〉可能性에 對하여 懷疑를 하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北韓의 平和攻勢는 바로 이러한 北韓住民들間에 造成될지도 모를 金日成不信感을 事前封鎖하려는 底意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와 同時에 金日成이 事前對備했기 때문에〈美國侵略主義者〉들은 後退하고 協商하기에 이르렀다고 宣傳함으로써 金日成 一人獨裁體制의 合理化에 逆利用하려는 것이다.

둘째 西方諸國과의 經濟交流擴大를 노리고 있다. 北韓은 戰爭準備에 全力을 傾注했지만 그들이 바라고 있는 精油工場等 戰爭基幹産業施設의 導入과 建設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南北赤十字會談의 進展에 따라 南北間의 人的往來가 있게 될 것인바 北韓은 韓國國民의 生活水準과의 比較에서 미칠 北韓住民에 對한 影響을 念慮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北韓은 住民들의 生活水準의 向上과 不足한 外資의 導入 및 軍需産業의 보다 큰, 發展을 期하기 위해에는 西方諸國과의 經濟交流가 必要條件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經濟交流가 可能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對外強硬路線이 修正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金日成으로서도 잘 알고 있는 事實일 것이다.

셋째, 韓半島에서 美國의 抑制力을 하루 速히 除去하겠다는 것이다. 赤化統一目標達成에 있어 하나의 큰 阻害要因은 韓半島에 있는 美國의 抑制力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北韓이 機會있을 때마다 惹起시킨 武力挑發을 오히려 駐韓美軍戰力の 強化를 가져오는 結果였다. 이제 平和攻勢로서 駐韓美軍의 早期撤收를 促進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戰術變更은 外部의 支援을 排除하는 南北間의 1對1의 局地戰 誘發과도 直結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北韓은 韓國의 國力培養은 勿論 對共警戒意識의 弱化를 劃策하고 있다. 北韓의 戰爭準備強化는 도리어 韓國으로 하여금 國力蓄積을 서둘르게 하는 한편 總力安態勢確立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였다. 따라서 北韓은 平和攻勢로써 韓國民의 對共防衛意識을 解弛시키는 同時에 昨年未에 宣言된 〈非常事態宣言〉의 早期解除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北韓은 共產諸國으로 부터는 勿論 自由諸國으로 부터의 孤立을 防止하고 國際的 地位向上을 꿈꾸고 있다. 즉 中共은 〈帝國主義의 總本山〉이라고 攻擊했던 美國과의 接近을 試圖했으며 하이퐁港의 封鎖와 北爆의 本格的인 再開에도 不拘하고 소聯은 닉슨大統領을 맞이하여 戰略武器制限協定까지 締結하였다. 이와 같이 中共이나 소聯이 한결같이 平和共存原則을 受諾하고 西方과의 接近 乃至 交流를 擴大해 나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北韓이 이에 逆行한다면 北韓은 共產國家들로부터의 孤立까지도 自招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北韓으로서의 致命的인 打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한 UN에서의 問題—北韓은 敗北를 當하고 말았지만—를 考慮할 때 北韓은 〈平和愛好國〉임을 僞裝하여 國際的 支持를 獲得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結論(對話를 위한 安保對策)

7·4共同聲明은 李厚洛部長이 말했듯이 南北韓間에 있을지도 모를 戰爭이라는 悲劇을 무슨 方法으로서라도 막아야 하겠다는 基本方針의 再確認에서 出發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政治的 約束으로 맺어진데 지나지 않으며 問題는 그 約束을 얼마만큼 서로 誠實히 이행하느냐 하는 行動의 表示로서 남게 되었다.

분명히 7·4共同聲明을 契機로 우리는 對話없는 南·北對決에서 對話있는 南·北對決의 時代로 옮겨가게 되었다. 對話가 곧 平和는 아니며 서로 思想과 理念이 極과 極으로 다른 體制끼리의 對話는 참으로 어려운 對話일 것이며 어느 모르는 對話없는 對決보다 더 어려운 對決임²²⁾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물며 北韓이 對南赤化統一目標을 버리지 않고 하나의 僞裝된 平和攻勢의 手段으로서 對話를 逆利用하는 마당에서의 對決의 어려움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克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賦課된 至上課題는 우리 國家의 安全保障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7·4共同聲明은 우리 立場에서 볼 때 우리의 積極의이며 보다 最大限의 國家防衛行爲, 즉 國家安保行爲의 所產임에 틀림 없으나 이것은 또한 逆機能으로서 이 時點에 있어서의 韓國安全保障을 위한 對備策을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對備策을 模索함에 있어서는 7·4共同聲明以後 發表된 朴大統領의 慶祝辭 또는 諭示의 內容이 매우 啓示的이므로 여기에 그 關係된다고 생각되는 主要部分만을 提示하고자 한다

◎ “南北聲明”은 平和統一을 갈구하는 5,000萬 同胞가 武力統一만을 고집해온 北韓共產主義者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民族的 良心의 勝利이며 南北間의 敵對感情과 不信의 장벽에

22) 7.4共同聲明 발표와 관련된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의 背景說明.

이제 겨우 조그마한, 그러나 온 민족의 염원이 걸려있는 對話의 通路를 마련한 것 뿐이다…… 지난 憲政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는 民主制度의 運營이 形式의 次元에서가 아니라 實質的인 內實의 次元에서 보다더 짜임새있는 능률적인 것으로 發展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南北對決에 있어 우리의 民主體制가 共產獨裁體制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立證하는 同時에 우리 體制가 共產體制와 對決하여 勝利할 수 있는 길이다²³⁾.

◎ “……國力の 뒷받침없는 統一의 堦원도 길없는 幻想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國力이 아무리 培養되었다해도 이 國力을 平和統一을 위해 總動員하겠다는 굳은 決心이 서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國力培養을 加速化하고 그 國力을 平和統一에 活用하는데 가장 切實하게 必要한 것은 派爭과 浪費와 방종이 아니라 誠實과 能率과 愛國心을 바탕으로 하는 國民的 大同 團結이며 우리의 團結은 곧 民族的 團結의 초석이다²⁴⁾.”

◎ “……. 올바른 安保意識과 투철한 反共精神으로 精神武裝을 한층 더 強化하여 北韓共產集團의 어떠한 僞裝平和宣傳이나 책동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그들과 대치하여 勝利할 수 있도록 全將兵이 모두 思想戰의 闘士가 되어야 하겠다. ……이제 南北對話가 시작된 오늘 우리의 힘이 보다 더 效果的으로 發揮되려면 그 힘은 마땅히 組織되어야 하겠다. ……나는 우리의 國力을 組織하기 위해 우선 國民各自가 國家와 民族을 위해서는 自己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다는 올바른 國民意識을 定立하고 社會紀綱을 確立하여 모든 分野에서 能率을 極大化하는데 더욱 힘차게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바이다²⁵⁾.”

◎ “…….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지금 南北對話의 그늘 밑에서 우리 社會의 混亂과 不安을 조성하려 꾀책하고 있다. 이 時點에 民主社會의 長點인 多樣性を 마치 分裂로 착각하여 派爭을 일삼는다는가 民主制度의 運營原理인 견제와 均衡의 原理를 不幸하게도 非能率의 口實로 삼으려는 政略과 奸計가 우리 周邊에서 횡포를 부린다면 모든 것은 마땅히 匡正되어야 할 것이다. …… 이 挑戰과 試鍊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悠久한 우리 民族의 矜持와 民族的 正統性이 바로 우리의 것이며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영예롭게 인식하고 矜持와 正統性을 더욱 공고히 하고 더욱 빛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가일층 獻身的인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 우리 모두의 굳은 團結을 축성하고 모든 分野에 있어서 能率을 極大化하는 데서 부터 具體化되어야 할 것이다²⁶⁾.”

◎ “……. 그러나 우리 周邊에는 아직도 한 민족의 矜持와 祖上들의 빛나는 偉業을 올바르게 理解하기조차 거부하고 심지어는 民族의 歷史를 否認하면서 異端的인 主體性만을

23) 1972年 7月 17日 第24周年 制憲節의 朴大統領 慶祝辭 參照.

24) 1972年 8月 15日 光復 27周年 記念式에서의 朴大統領 慶祝辭參照.

25) 1972年 10月 1日 第24回 「國軍의 날」 記念式에서의 朴大統領 諭示 參照.

26) 1972年 10月 3日 開天節 記念式에서의 朴大統領 慶祝辭(金鍾泌國務總理代讀)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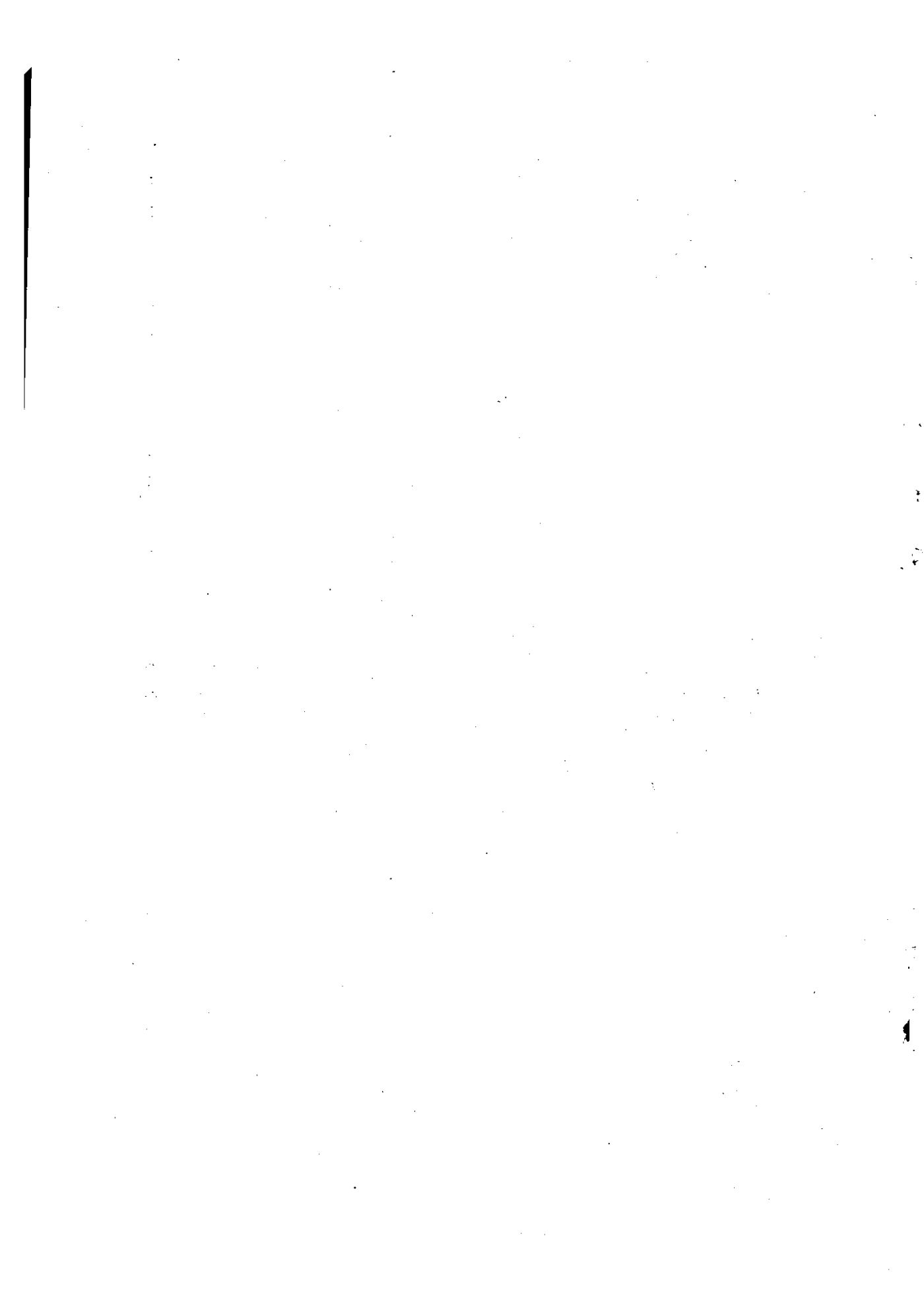
외치는 부류들이 있다. 이들이 民族의 正統性에 거역하면서 스스로를 民族의 連續性에서 단절해 놓은 채 말로만 <主體性>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우리 民族에게 賦與된 時代的 使命을 망각한 처사이다. …… 하루 速히 民族의 良心으로 되돌아오고 異端的인 主體思想에서 과감히 脫皮하여 祖上이 남겨준 文化遺産을 더욱 發展시키는 民族의 隊列에 參加하여야 한다”²⁷⁾.

즉 이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重要的 事項들은 첫째 國力の 繼續的인 培養과 그 組織化 둘째 自由民主制度의 能率的인 發展, 셋째 우리 民族의 矜持와 民族의 正統性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努力의 傾注 끝으로 異端的인 主體思想의 排除等이다.

7·4共同聲明을 契機로 安保의 側面에서의 對備策은 더욱 더 重要的 것이다. 7·4共同聲明의 全文의 어느 구석을 훑어보아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떠한 對話의 方式이나 內容도 平和가 保障되지 않고서는 즉 從前과 같은 侵略行爲가 있고서는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을 前提로 하지 않은 대목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經驗은 人道的인 또는 民族的인 倫理나, 道德性의 自覺만으로 侵略이 止揚되리라는 確信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大的인 侵略에 直面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우리의 國防力의 嚴存으로만 可能했고 그 國防力의 뒷받침은 國力の 蓄積에 있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侵略의 企圖를 事前豫防해온 우리 國軍의 健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一面 國防을 하면서 一面 經濟建設을 할 수 있었고 나아가 더욱 積極的인 國家安保를 기하기 위한 對決이 가시지 않는 前提에서의 南北對話를 모색하기 위한 7·4共同聲明을 生産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生産物의 結實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安全保障 곧 武力侵略을 防止하기 위한 힘의 確保와 그 組織化가 要求되며 또한 民主制度의 工着化로서 그 長點을 最大限 發揮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27) 1972年 10月 9日 「한글날」에 즈음하여 發表된 朴大統領의 談話文參照.



Ⅲ. 討 議 及 建 議

1. 討 議

2. 綜 合 及 建 議

新 型 男 裝 插 冊

總 經 銷 處

廣 東 省 廣 州 市

세미나 討論要旨

討論參席者：	金 點 坤(경희대教授)	閔 丙 天(東大教授)
	李 基 遠(國防大教授)	崔 峴 煥(東大教授)
	金 鎮 堯(東大教授)	尹 宗 鉉(한국일보)
	조 승 재(國土統一院)	洪 鍾 赫(東大教授)
司 會：	鄭 允 武(東大教授)	
日 時：	1972. 11. 14	場 所：(東國大學)

司會：대개 오늘 討論할 部分이 國際情勢面, 北韓態度面, 國內의側面, 結論 이러한 네가지 部分에서 討論을 進行하겠습니다. 그리고 時間關係로 國際情勢面에 있어서는 김 점근教授가 北韓態度面은 윤 종현先生님, 國內의側面은 최 요환教授, 南北對話의 方向은 조 승재先生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말씀하시고 討論은 오늘 發表한 基調演說과 主題演說에 대해서 質問하는 形式을 취하겠습니다. 먼저 김 점근教授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 點坤：發表를 하신 분께서 「페이퍼」를 너무 상세히 쓰신 것 같아요. 討論의 여지를 좀 남겨 놓고 쓰면 좋을텐데 특히 민 병천教授의 「페이퍼」는 옛날부터 定評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論文은 아주 걸작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컴퓨터」로 무엇을 짜놓듯이 해 놨어요. 이렇게 보통 안쓰는 것이 예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討論의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 어느정도 空白을 제공하는 것이 예인데 너무 꽉 짜놔서 사실은 討論의 여지가 없드시피 합니다. 이 기원教授께서 쓰신 論文도 제가 어제밤에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이 論文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쓰셨어요.

다만 민教授가 쓰신 論文가운데 제가 質問을 하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말씀을 지금 정教授께서 하셨는데 이 8「페이지」에 빗췌 관계강대국의 최대개입 지역은 緊張的이고 최소개입 지역도 緊張的이다. 하는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저는 同意합니다.

그러나 어느 「케이스」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는 것도 첨가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緊張地域에 介入하는 것은 反對로 얘기하면 그 目的은 均衡이나 安定을 이루라는 것이 目的입니다. 따라서 均衡이나 安定을 이룬다는 것이 물론 相對的이기 때문에 그것이 一方的인 價値로만 評價를 받느냐 하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적어도 強大國으로서의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狀況으로 展開을 前提로 해서 均衡 혹은 安定을 추구합니다.

만일 強大國의 介入이 緊張을 가져온다는 理論이 熱戰으로 변했다는 면에서는 是認을 하지만 그 緊張이 만일 없었더라고 한다면 越南은 아마 그때 거의 赤化가 되었을 터이고 赤化가 되었으면 그보다 더 다른 형태의 더 심한 紛爭이 또 벌어져서 緊張은 만 형태로 發展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50년에 韓國戰爭前의 韓國事態를 보시게 되면 분명합니다.

잠재긴장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면상의 긴장완화라는 것은 소련군과 미군이 한반도에서 거의 동시에 철수한데에 의해서 國際關係에 소위 表面上 均衡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한반도에 어느 의미에서 긴장이 해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해소될 可能性이 있으니 撤收했다고 兩國은 정당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大國들이 撤收하면서 부터 새로운 긴장이 대두되었고, 50년에 韓國戰爭이라는 참화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내는 것이 아니고 몇개의 「케이스」를 더 제 나름대로 첨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을 따름입니다. 특히, 이 문제가 지금 미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外部에 依存하는 依存도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以北은 依存도가 낮다고 한다면 反對로 자주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狀況에서 四個強大國의 相互關係는 대단히 미묘한 영향을 南北韓에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7.4성명, 李教授 論文에도 관련된 7.4성명은 그러한 국제적인 背景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긴장완화라는 것을 內的인 狀況으로 얘기한다면 상호 특징을 가진 두 集團의 發展이 異質的인 發展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균형을 나타냈다는 하나의 균형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현상보다는 더 우위한 위치에서 이 상황으로 돌아간 原動力 一種의 壓力作用은 역시 四強의 상호 화해에 있다고 보고 이 화해상황의 특징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脫「이데오로기」의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대단히 미묘한 영향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南北韓에 준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依存도가 높은 남한이 어느정도 自主力을 구축하여 中和시키는 어떤 對策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內的 要素中에서 아마 相互關係에 가장 중요한 問題點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도 외부와 關係를 차단하려는 北韓의 책략을 어떤 方法으로 막으며 그것을 名分上 正當化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假裝 目的을 앞에 名分으로 내세운다고 말씀했는데 이 7.4성명 제 1항의 세가지 統一原則은 그런 면에서 아마 두고두고 國際協力 關係에는 커다란 一種의 要索으로 들어날

것이 아닌가 봅니다.

閔 丙天: 金先生님 말씀하신 것과 제 의견은 사실상 같은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관계되는 強大國이 자기의 利益을 追求하기 위해서 最大限으로 關與할 경우에 戰爭狀態가 일어나고 또 그러한 關與를 最小限으로 할 때에도 일어난다.

예컨데 50年の 狀況에서 우리가 美國이 韓國에 있어서 最小介入을 했기 때문에 戰爭이 일어났고 또 越南의 경우는 最大介入을 했기 때문에 戰爭이 일어났다. 그래서 最大의 介入과 最小介入時에 熱戰의 狀況이 展開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듣기에는 金先生님 말씀은 같은 것으로 理解합니다.

司 會: 그 다음 國際情勢面에서 論文에 대해 더 質問이 있으면,

金 鎮轍: 閔교수께서 安保와 統一의 關係를 말씀하셨는데, 序論에 安保와 統一에 관한 것을 어떻게 정립해 가지고 論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하고 意見이 다르지 않느냐? 즉 安保와 統一 문제를 同一한 次元에서 놓고 모든 것을 論述해 나가지 않았는가를 느꼈습니다.

제 자신은 安保와 統一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을 좀 다른 次元에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南北에 있어서의 安保態勢라고 하는 것 이것이 즉, 南北統一 成就에 어떤 핵심적인 요인, 어떤 因子的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같이 동일한 次元에서 보면 안되지 않겠느냐? 어떤 면에서 변수의 변수적인 역할을 해 준다. 이것을 다른 次元에서 볼 경우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安保는 南北이 서로 分斷되어 있다 하는 사태에서 얘기할 수 있지요. 南北이 서로 分斷되어 있다고 하는 이 分斷이 原因이 되어 가지고 南北間에 있어서의 關係는 자기의 支配下에 相對方을 壓迫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權力政治現象이 서로 南北間에 展開되고 있기 때문에 安保의 重要性이 강조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強大國과의 國際政治가 지금 어떻게 進行되고 있느냐 하면 現狀維持를 위한 긴장완화 상태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이지요. 즉, 이것은 세력균형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세력균형 정책은 각 國家의 實利追求政策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같은 국제정치 상황에서 強大國들이 자기의 세력균형 정책에 따라서 분단국의 운명을 좌우시킬 그러한 상태에 까지 到達할지 모른다 하는 點이 두가지 점에서 우리는 安保의 重要性이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閔 丙天: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金先生님 말씀하신 것은 분단된 狀況이 安保문제를 提起한다. 따라서 그 安保문제라고 하는것은 國際的인 현재 관계보다도 분단 狀況 自體에서 派生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金 鎮轍: 아니 두 가지로 얘기했지요. 그것과 分斷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強大國의 國

際政治 狀況에서 強大國의 政治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서 우리의 安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問 丙天: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은 分斷이나 國際環境을 獨立변수로 하고 安保를 종속 변수로 해서 安保문제를 꼬집어 내기 위한 方式으로서 그러한 方式이 취해지는데 그것은 제 1차 序論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分斷되어 있다고 하는 狀況 자체 때문에 安保상황이 몇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생긴다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2차 序論은 安保상황을 종속변수로 해서 결론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安保상황을 독립변수로 하고 그것이 통일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위주로 보는 것이지요. 統一이라고 하는 側面에서 보면 그것은 南과 北이 서로 結合되는 특징적인 현상이고, 安保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對立的인 面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安保상황이 우리의 남북관계라고 할까, 統一문제에 어떻게 影響을 주고 北韓의 意圖와 能力이 거기에 어떻게 影響을 주고, 南韓의 安保상황이 統一에 어떻게 影響을 주느냐는 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金先生님 말씀하는 것은 그 前 段階 作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司 會: 김先生님 얘기도 論文에 대한 하나의 補充으로서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더 진지하게 하려면 시간이 한정이 없겠습니다. 국제정치 문제는 그 좀 끝이고 그 다음에 北韓 態度面에서 본 安保와 統一문제 이런 側面을 얘기하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특히 앞서도 發表때 많이 強調했습니다만은 南北對話의 궁극목표를 北韓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 중현先生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 宗鉉: 아까 두분께서 發表하시는 內容을 들었는데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거의 異論이 없습니다. 李 基遠교수께서 北韓의 底意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국제정세의 변동관계를 말씀하셨고, 또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면에서도 이의가 없고 발표하신 내용이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歷史적으로 한국이 해방되어 가지고 分斷 상태가 심화되어가는 過程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1947년 美蘇共同委員會에서 蘇聯측 대표가 韓國문제를 韓國 사람들에게 맡기자 하는 것이 제 2차 美蘇共同委員會에서 이미 대두되었습니다. 그외에 모든 國際會議 또는 휴전회담이나 그 이후에 있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할 때마다 또는 「UN」에 있어서의 韓國문제를 토의 할 때마다 共產側이 일관해서 主張해온 문제는 역시 韓國문제는 韓國사람들한테 맡겨 해결하도록 맡기자 하는 것이 그네들이 주장해온 基本을 이루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韓國문제의 韓國化問題에 대해서는 中共, 蘇聯, 北韓 기타 공산국가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南北對話를 한다는 그 의의를 北韓측으로서는 韓國문제의 自體化라는데다 두고 主體思想을 들고 나오고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過去의 배경 상황과 근본 의도가 그 문제에 중점적으로 있다. 하는데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들이 韓國 문제의 自體化라고 하는데 관해서 그렇게 역점을 두어야 되느냐, 아까 地政學的인 면에서 말씀하셨는데 事實에 있어서 地政學的인 關係를 볼것 같으면 安保면에서든지 統一면에서든지 北쪽의 위치가 우월한 立場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또 北이 가지고 있는 軍事力이라든지 이런 分野에 있어서는 우리 보다 월등하다고 보고 政治思想면 政治意識 수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앞선것이 어느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적에는 安保문제 또는 統一문제를 장차 隣자기네들 뜻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韓國문제를 자체화시키는 것이 자기들로서는 有利하지 않겠느냐? 北이 對話에 응해 온 이유가 이러한데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司 會: 그런 면에서 보충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洪 鍾赫: 우리가 협상을 가지고 끝까지 끝내지 못하든지 그럴 수는 없을것 같아요. 단지 金日成의 약점이라는 것이 한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經濟問題입니다. 결국 經濟問題가 金日成의 弱點인데, 이 약점이 日本과의 경제협력을 모색케 했습니다.

司 會: 좋은 말씀이십니다.

尹 宗鉉: 대화에 있어서 표면적인 어떤의도 하고 저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각도로 보았을 경우에는 對話過程에 있어서 자기들의 主張을 「클로즈업」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서 응하지 않을때는 어떤 새로운 양상의 도발이라든지 분쟁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것이 아니냐? 이런것을 의심하는 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金 點坤: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마는 對話가 國際的인 환경의 作用때문에 自意로 접촉을 시작할만한 형편이 안되어 있다 하는것은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對話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거대한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가 복합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기저를 이루는것은 역시 軍事力일 것입니다.

상호 우선 물리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다는것이 대전제예요. 그 균형에는 물론 北韓으로서는 자기 영역의 공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육속된 두개의 거대한 共產國家의 「백업」이라는 것을 계산에 넣었을때고 우리는 現實的으로 6,000마일 이상 떨어진 美國을 「백업 파워」로 생각할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한 美軍이라든지 日本의 기지라든지, 이런것이 변모되어 가고 있지만 역시 계산에 넣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현상등결을 시킨다면 현재 종결하고 있는 美

軍지원까지가 전부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일에 현상동결에서 그런것이 제외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불균형이 생겨날 것이요.

둘째번에는 相互 자기 體制를 強化하고 상대방에 자기 體制를 強要하고 상대방 체제로의 統合을 막기 위해서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다.

이것이 軍事的인 對立으로 부터 군사분쟁까지를 걸쳐서 소위 軍事的인 교착상태를 가져왔고, 오늘날까지 커다란 變化는 없으며 작은 「웨이브」를 그리면서 역시 균형을 이루어 왔다. 그렇다면 지금 對話 그 自體가 戰爭의 위험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누가 너무 상급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第一次으로 착수해야 될 것은 두가지가 있을 것이요.

하나는 軍事力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될 것이고, 다음은 그 군사력이 충돌하지 못하도록 충돌의 要因을 제거해 주어야 될거예요. 그래야 할텐데 그 問題는 지금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군사력을 축소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텐데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물론 「SALT」회담에서도 우리가 보았고, 「SALT」회담이라는것은 비교적 단조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짊을 수 있는 性格이예요. 그러나 지금 구라파에서 대두되고 있는 소위 상호감축이라든지 均衡의 相互減軍이라는 것은 거의 不可能입니다. 獨逸의 軍部の 責任者들도 다 부정적이예요, 기술적으로 불가능 한것을 政治的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서 펴 시사적인 얘기지요. 왜 그러나 하면 짊는것을 균형있게 짊는것이 아니고 남은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요.

두개의 거대한 공산권, 우리 뒤에 있는 美國과 日本의 세력, 그 役割 이것이 어떻게 調和를 이룰것인가 하는것을 다 차단하고 생각하더라도 어려운데 이것까지를 계산한다면 복잡한 얘기가 될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짊아내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것을 짊는데 있어서는, 세계로 아마 제일 어려운것이 감시일줄 생각되요. 그러니까 4대 강국이 의당 감시에 직접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는 휴전선에서 기능적 統合이니 해서 우리 소장학파들이 상당히 열을 떠어서 했읍니다마는 그 部分만 짊 떼어서 얘기 한다면 以北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것과 一致되었다는 事實,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충돌의 可能性을 적게하기 위해서는 물론 줄인 軍事力 위에다가 서로 부딪치지 못하게 相互 空間만을 넓혀야 될것입니다. 英國의 국회의사당처럼 칼을 빼서 서로 휘둘러도 相對方에게 닿지 못할 거리까지만 떼면 理論的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지마는 과연 댈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떼게 되면 아마 재 생각 같아서는 10km씩 뒤로 물러나면 되겠는데 서울 바깥 北쪽까지 휴전선이 뒤로 물러나올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空間的인 처지보다는 機能처치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금방 접촉이 시작 되었고, 또 조절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지금 구성도 안되고 있고 原則만 합의된 상황에서 곤란하지만은 사실 南北쪽의 基本性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이점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인가. 아까 金 선생님께서 安保와 統一이라는 것은 별개 次元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現實적으로는 상호 괴리된 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별개의 차원에서 지금 論議할 도리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접촉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기술적으로 하나씩 시정을 시켜 나가느냐? 현실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아마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 되지 않을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司 會 : 南北關係를 中心으로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北韓 저의에 비추어볼때 오늘날 對話라는 것이 安保와 동떨어진 무슨 平和의 「무드」를 調成시킨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國民들의 정신무장을 해이시킨다. 이런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國內의 측면에서 본 安保와 統一문제를 우리나라의 국력을 조직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체제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시켜서 崔교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崔 峯煥 : 2, 3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7.4共同聲明은 北韓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原因을 國內外 정세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네들의 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국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것이 아닌가 보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安保의 그 양상은 더 복잡해졌으며 南北對話가 전개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安保는 더욱 重要視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結論을 짓는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여러가지 國際政治學을 전공하신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南北對話가 전개되고 있다 할지라도 政治的, 軍事的인 것은 항상 위협이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국제정세 즉 強大國家들간에 있어서의 국제정세는 지금 「아시아」문제 특히 우리 韓國問題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의 強大國家의 손에 들어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나는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自國의 세력 安定과 또 相對方의 세력 확충에 대한 견제작용에 혈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韓國이 앞으로 어느 한 나라의 支配 속에 들어가기 전에 統一問題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自由民主 體制下에서 南北統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쪽서는 經濟的인 면에서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國土開發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經濟的인 問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때에 한쪽으로는 經濟的 부흥과 國力을 배양하면서 對話를 계속해야 될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적극 추진하는 길이 분명한 政策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것입니다.

司 會 :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結論으로서 統一院에 계시는 조 승재선생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승재 :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南北對話를 진행시키는 동안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國內的對策으로서 대통령의 영단인 10월 維新 事業이 進行되고 있습니다만 對北戰略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의 새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풀어진 힘을 한곳에 집중하는 國民 總和와 國論 통일을 해야만 南北對話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信念과 둘째로는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各 分野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력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對話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統一問題는 꼭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사명감이 필요하고 共產集團에서 平和 대동단결을 내세웠습니다마는 그네들은 아직도 남한 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정신무장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고, 10월 維新 事業을 적극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司 會 : 네 그 이외에 말씀들이 많으실 것입니다마는 시간도 다 됐고 하여 이로써 오늘 토의를 그치겠습니다. 오늘 討議 하신것은 간추려가지고 지상에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綜合 및 建議

以上の 討議 結果는 다음과 같이 綜合된다.

- (1) 韓半島를 중심한 國際權力關係가 불안정한 狀態에 있고 強大國들이 實利爲主의 정책을 추구하는 상황속에서는 우리의 安保와 統一問題를 全民族이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南北對話는 學族的으로 支援되어야 한다.
- (2)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의 活動은 四半世紀間의 民族斷切에서 생긴 전쟁 위험을 방지하고 민족분단의 永續化를 해소하기 위한 大事業이라는 점에서 民族史에 새로운 章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두 사업은 信賴의 바탕위에서 점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統一을 위한 노력과 南北對話는 民族의 安全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친 교류에 병행하여 戰爭防止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方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祖國統一과 戰爭防止라는 두 가지 課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國力을 최대한으로 組織化하고 효율적으로 動員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뜻에서 10月維新은 民族의 活路를 개척하기 위한 歷史的 運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5) 지금 진행되고 있는 「維新事業」은 한국의 여건에 부합되는 政治體制를 확립하고 사회적 不條理를 제거하여 조국의 통일뿐만 아니라 번영되고 명량한 國家社會를 이룰 수 있는 發展的인 것으로 이해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 (6) 민족의 통일과 안보문제는 국민적 애지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學者나 專門家는 이에 積極的인 姿勢로 참여하여야 하고 政府는 이를 뒷받침하는 諸措置를 강구해 주어야 한다.

